



“투자는 개인이 위험감수
능력 범위내에서 증권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해야”

자본시장 정책 패러다임
외환위기 이후 대전환 예고

임종룡式 자본시장 개혁

‘투자자 보호’서 ‘자기 책임’으로

“개인의 접근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방식의 투자자 보호 철학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조금씩 바뀌 나가야 한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이 아닌 자기 책임하에서 금융상품을 고르는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으로 작용했던 ‘투자자 보호’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 제1조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투자자보호법’으

로 작용해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2월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이다. 개미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매수하는 종목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밝힌 이후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발족하는 등 정책 방향이 ‘투자자 보호’에 과도하게 쏠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위험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증권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시장은 스

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에 나서면서 시장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 들어 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금융당국 수장의 이번 발언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코넥스 예약금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장외시장 2부를 새롭게 개설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2면

이번 방안은 스타트업과 벤처창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희진 기자 heejin@

‘휴지조각이 金 될까’ 상폐기업 묻지마 투자

개미들의 ‘무國 한도전’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의 정리매매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세다.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거래소와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경남기업의 정리매매에서 개인들은 147억 7836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137억 4451만원을 순매도하고, 외국인인 1억 2999만원을 순매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실시된 신일건설의 정리매매에서도 개인들은 8억9244만원어치를 순매수한 데 비해 기관은 5억4607만원, 외국인은 3764만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실시된 울트라건설의 정리매매에서도 비슷했다. 지난 3월 정리매매 당시 개인이 3억3530만원을 순매수하는 동안 외국인은 3억2696만원을 순매도했다. 22일 정리매매가 시작된 해피드림에도 개인들은 4억6900만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외국인과의 거래는 없었다.

경남기업은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고성완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차원의교 비리 의혹 등으로 검



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하루 동안 주가가 90% 이상 급등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정리매매 내내 이어졌다. 당시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담보로 갖고 있던 성 회장의 주식까지 대량 처분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상장폐지 기업의 상황도 별만 다르지 않다. 신일건설, 울트라건설 역시 자본전액잠식 상태이며 해피드림은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이마저 전일 기각됐다.

이처럼 곧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단기간에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회사의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로또복권을 구입하듯 주식을 매입해 장중 수차례 사고파는 행태가 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투기성·도박성 투자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나스닥지수 15년 만에 최고치



23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지수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이날 관련주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0.41% 오른 5056.06을 기록했다. 지난 2000년 3월 9일 나스닥지수가 처음 5000선을 돌파할 당시 뉴스 앵커인 찰스 몰리노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마켓사이트 전광판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뉴욕/AP 연합뉴스

채권단, 성동조선에 4200억 추가자금 지원

우리銀 ‘동의’로 지원 일단락
성동·SPP·대선조선 등
부실 중견조선사 통합 가시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6년째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상태인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채권단으로부터 485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받은 SPP조선과 성동·대선조선 등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중견 조선사들의 공동 경

영인 통합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선업계에 닥친 장기 불황에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자금 지원이 자칫 밀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통합 등을 통한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채권단에 따르면 성동조선 채권단의 캐스팅보트로 신규 자금 지원에 결정권을 쥐고 있던 우리은행은 이날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하기로 합의하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실상 우리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성동조선에 대한 4200억원 신규 자금

지원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달 17일 성동조선에 대한 4200억원 신규 자금 지원안을 부의했다. 앞서 농협은행이 성동조선의 자금 지원을 찬성한 가운데 추가 자금 지원의 열쇠는 우리은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성동조선의 채권단 비율은 수출입은행 51.4%, 무보 20.39%, 우리은행 17.01%, 농협은행 5.99%로, 수출은행과 농협은행의 추가 지원 동의로는 가결요건 정족수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5% 미만 소액 채권자 비율을 합쳐 채권액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으

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21일 신한은행과 SC은행 등 소액채권단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2대 채권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1일 수출입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안의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무보는 채권단 자율협약에서 빠지는 대신 그동안 성동조선의 자금 지원을 위해 채권은행이 대신 내준 자금 8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을 갚기로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무보가 빠져나가면서 5000억원 자금이 유입돼 성동조선의 부채가 줄어 회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출혈경쟁을 우려해 원가 인하인 신규 수주에 대해 수주를 차단하는 단서를 붙였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삼성전기, 영업이익 6분기만에 최대

1분기 608억원 작년 동기대비 302%↑...칩부품 매출 호조

삼성전기가 비상했다. 6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거둬며 본격적 실적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고사양 부품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다변화 전략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삼성전기가 24일 발표한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7765억원, 608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 6분기 만에 최대 수준으로, 작년 동기(151억원) 대비 30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79%(약 500억원)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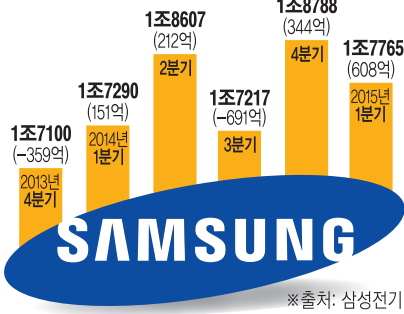
다만 매출액은 전 분기(1조8788억원)보다 3.1% 감소했다. 스마트폰용 고부가가치 부품과 통신모듈 판매가 확대됐지만 TV 및 PC용 부품 수요 약세와 해외 거래선의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기는 “고사양 부품의 판매 확대로 제품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화 활동이 더해져 영업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칩부품 부문이 효과 역할을 했다. 초소형·초고용량 솔루션 MLCC 판매 확대와 박막 파워인터티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삼성전기 실적 추이

단위: 억원, ()는 영업이익



※출처: 삼성전기

칩부품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각각 증가한 5340억원을 기록했다.

디지털모듈 부문 매출은 전 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각각 7%, 1% 감소한 8519억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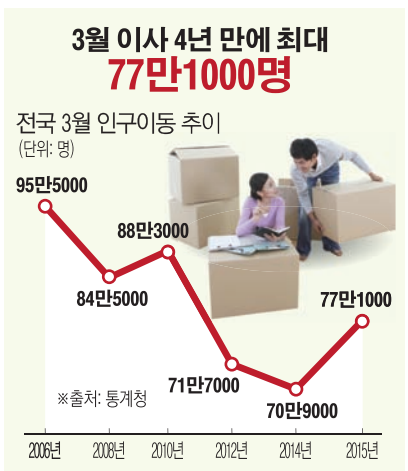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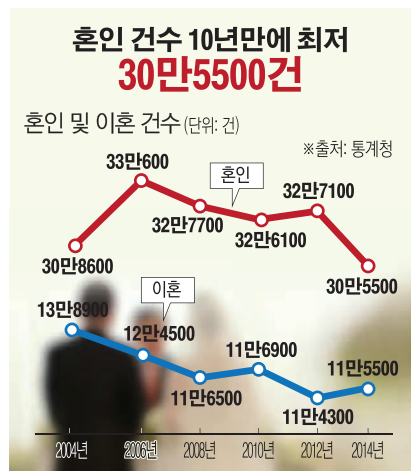
기관 부문은 글로벌 PC 수요 약세에 따른 FPCB 매출 감소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8%,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각각 감소한 38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지영 기자 guty@

데이터 뉴스 Data News

‘불황의 그늘’ 혼인을 역대 최저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6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혼인율은 6.0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으로 전년보다 1만7300건(-5.4%) 감소하며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일반혼인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상영 기자 sympark@



‘부동산 혼풍’ 3월 이사 늘었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3월 국내인구 이동’에서 지난해 국내 이동자 수가 77만 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3월 수치로만 따졌을 때 2006년(9.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인구이동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주택경기 활성화의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만1869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4.4% 늘어났다. 박상영 기자 sympark@

하루 한생각

融融泄泄 (용용설설)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 12면

STAR 스페셜

▶ 15~17

LPGA ‘태극돌풍’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최신인 회장 ▶ 이흥구 부회장 ▶ 9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주식 증여... ‘말형’ 최신헌의 책임감

〈SKC 회장〉

SK텔레시스 1300만주 무상으로
SK 주식은 1000주 장내매수 취득
‘SKC 계열분리’ 일출 그룹행보 도와



최신헌(사진) SKC 회장이 그룹 오너(家) 망형으로서의 책임감을 묵묵히 드러냈다. SK그룹의 합병으로 SKC의 계열분리 설이 비등해지자 주식 증여 및 취득을 통해 이를 잠재운 것. 최 회장의 결단으로 SKC의 계열분리 가능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신헌 회장은 23일 그룹 지주사 SK㈜ 주식 1000주를 장내매수했다. 최 회장의 지분 매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기존 1496만6127주에서 1496만7127주로 늘었다.

재계는 22일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회장의 보유 지분 증여 등과 연관지어, 최 회장이 SK㈜와 SK C&C의 합병 등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

스 지분 17.3%를 보유해 재계에서는 사실상 최 회장이 독자 경영해 온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그룹이 지배구조 명목화를 위한 합병 이전부터 줄곧 계열 분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22일 자신이 갖고 있던 SK텔레시스 주식 1300만주, 약 65억원어치를 회사에 무상 증여함에 따라 이 같은 시나리오는 단순한 설로

하러는 그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SK텔레시스 SKC가 지분 50.6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SKC는 SK㈜가 42.3%를 갖고 있다. 다만 계열사 지분을 제외하고 작년 말 기준 최 회장이 SKC 지분 1.82%, SK텔레시스

지분 17.3%를 보유해 재계에서는 사실상 최 회장이 독자 경영해 온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그룹이 지배구조 명목화를 위한 합병 이전부터 줄곧 계열 분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22일 자신이 갖고 있던 SK텔레시스 주식 1300만주, 약 65억원어치를 회사에 무상 증여함에 따라 이 같은 시나리오는 단순한 설로

그치게 됐다. 회사가 수증받은 주식은 SK텔레시스 자사주로 편입됐다. 최 회장은 앞서 작년 4월에도 2000만주의 주식을 SK텔레시스 자사주로 증여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정호 회장의 차남으로 고(故) 최정호 2대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최 회장은 매제인 박장석 SKC 부회장과 올해 SKC 등기임원에서

조남호 기자 spdran@

〈유수홀딩스 회장〉

최은영의 백기사 ‘프라임밸류’ 6년만에 지분 전량 털고 결별



유수홀딩스 계열분리
284만여주 불록딜
투자회수 목적 매각

오랜 기간 최은영(사진) 유수홀딩스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해왔던 프라임밸류가 최 회장 결을 떠났다. 그동안 실패했던 불록딜(대량매매)에 성공하며 프라임밸류가 보유했던 유수홀딩스 지분을 전량 처분하게 된 것.

24일 유수홀딩스에 따르면 프라임밸류는 23일 불록딜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유수홀딩스 지분 284만6428주(10.93%)를 모두 처분했다. 프라임밸류는 최 회장이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위해 한진해운홀딩스를 설립할 당시부터 절대적인 우호세력이었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직전인 2009년 11월 프라임밸류에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사주(3.62%)를 600억원에 매각, 프라임밸류는 다시 현물 출자에 당시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의 지분(10.93%)을 확보하며 최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후 해운경기가 침체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데다 지난해 한진해운까지 한진그룹으로 넘어가자, 프라임밸류가 최 회장 측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에 프라임밸류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관련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달 5일 한진해운 지분 전량인 485만6199주(1.97%)를 불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프라임밸류는 동시에 유수홀딩스 지분(10.93%) 매각도 추진했다. 지난달 9일 투자자 참여 저조로 매각작업을 중단하며 불록딜에 실패했지만, 40여일 만에 수요자가 나타나 불록딜 제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프라임밸류는 오랫동안 이어 온 최 회장과 인연의 고리도 완전히 끊게 됐다.

하유미 기자 jsc508@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매입한 김정태 회장 ‘저평가... 투자 절호의 기회’



2725주 장내매수
모두 5만100주 보유
“추가영향은 제한적”

김정태(사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또 자사주를 취득했다. 지주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벌써 4번째다. 하나금융지주의 주가가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것이 김 회장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지난 23일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 2725주를 3만1050원에 취득했다. 이에 김 회장의 자사주는 4만7375주에서 5만100주로 늘었다.

김 회장의 투자에 불구하고 하나금융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유한 자사주의 가치도 지난해 9월 4일 증가 4만3450원 당시 평가액 20억584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번에 취득한 자사주를 합쳐도 이날 23일 증가 31450원 기준 15억7564만원에 불과하다.

기존 자사주(4만7325주)는 23일 증가 기준 주식가치가 14억8837만원으로 고점 대비 6억여원 줄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자사주 매입은 그만큼 경영 상황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CEO로서 회사의 자산 및 실적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실제로 김 회장은 2013년 3월 25일 장내매수로 2000주를 3만6800원에 취득한 후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2013년 4월 1일 3만9650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2013년 4월 2일 장중 4만1500원을 돌파하다가 3만7450원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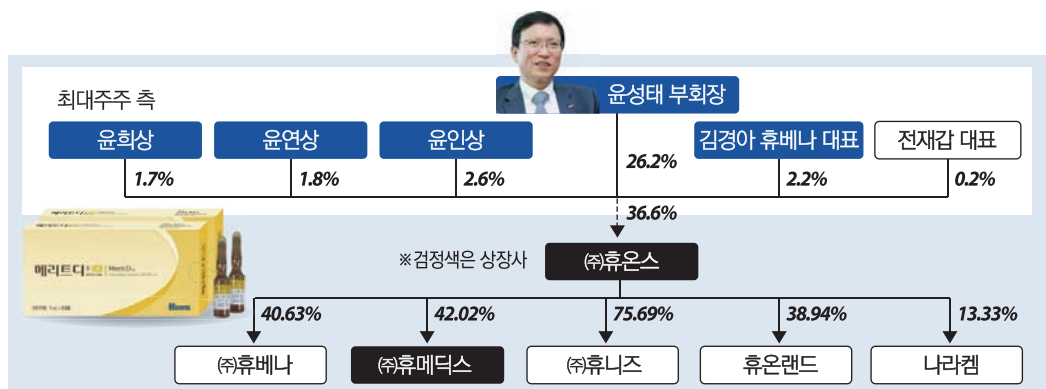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EO의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이지만, 추가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규권 기자 kkk@

제약사 지배구조 분석

② Huons 〈끝〉

윤성태 부회장 26% 보유 최대주주 창업주와 차별화... ‘2세 경영’ 성공



휴온스는 지난 1965년 광명약품공업사로 설립된 이후 20년 뒤인 1987년 광명약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했다. 이어 1999년 광명제약으로, 2003년에는 지금의 휴온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 23일 증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591억원으로 코스닥 제약업종 내 시총 순위 7위에 올라 있다.

휴온스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1565억원, 영업이익 211억원으로 지난 2010년보다 무려 64%, 3400% 증가하며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5년 전만 하더라도 6억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원을 넘어섰으며, 순이익의 경우 지난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4배가 넘게 늘어났다.

2003년 상호변경 3년뒤 코스닥 상장
작년 영업이익 200억원...비약적 성장세
휴메디스 등 계열사 4곳 화장품 공략

◇성공적 ‘2세 경영’ 윤성태 부회장 최대주주 = 40~50대의 오너 2세가 공격적 경영에 나서면서 성공적으로 안정한 제약사 중 한 곳이 바로 휴온스다. 휴온스는 10년 사이 비약적인 외형 성장을 이룩한 가운데, 올해에는 매출 2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휴온스의 최대주주는 윤성태 부회장으로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주식 296만1778주(지분율 26.2%)를 보유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휴온스(옛 광명약품) 창업주인 고(故) 윤병용 회장의 아들로, 외국계 회사인 한국IBM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광명약품에 대리인으로 입사했다. 이후 윤 부회장은 1997년 부친인 윤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고 경영을 맡게 됐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는 부

인인 김경아씨(2.2%)와 장남 인상(2.6%), 차남 연상(1.8%), 3남 희상씨(1.7%)를 비롯, 현재 휴온스 대표를 맡고 있는 전재갑씨(0.2%) 등이 있다. 이 밖에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36.6%에 달한다.

◇지난해말 상장된 휴메디스를 비롯해 계열사 4곳 = 휴온스는 총 4곳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휴메디스로, 휴온스가 이 회사 지분 42.02%를 보유하고 있다. 휴메디스의 주력 상품은 필라·관절염 치료제·안과 수술 보조제 등으로, 지난해 매출 292억원·영업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휴메디스는 지난 2010년 경영 악화로 휴온스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2012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히알루론산 필라 ‘엘라비에(Ellavie)’ 출시에 성공했다. 엘라비에에는 이후 2년 만에 국내시장 점유율 4위·연매출 100억원대 달성에 성공하면서 휴메디스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효자품목으로 등극했다. 이 제품은 지난달 초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

휴온스는 휴메디스를 통해 화장품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고순도 히알루론산에 멀티세포성장인자까지 함유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인 ‘휴온’은 2013년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위생 허가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휴메디스가 오라를 피부과와 중국 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올해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로는 국내에 휴니즈와 휴메나가 있는데, 휴온스가 각각 75.69%, 40.6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휴니즈는 의료기기용 세척소독제 제조업체로 신종플루 유행 시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같은 특화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휴메나는 주사제 용기인 앰플과 바이알을 생산하는 업체로 윤 부회장의 부인인 김경아씨가 대표로 재직 중이다.

강인호 기자 kangih@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합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계획 공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접수기간	2015. 4. 13(월) ~ 4. 30(목)			
선정분야 및 직종	22개분야 96개직종		금형 등 20개직종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별도심사)
선정인원(사업체)	35명 이내	50명 이내	10명 이내	5개 업체 이내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접수개시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 자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접수개시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접수개시일 현재 선정대상 직종(보유기능)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자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장비, 전수계획, 전수대상자를 확보한 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우대사항	①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② 대한민국명장패 수여 ③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매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④ 해외산업연수 ⑤ 근로감독면제(1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 상실 없는 중소기업)	①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② 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 ③ 대학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④ 근로감독면제(2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 상실 없는 중소기업)	①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훈장 수여 ② 숙련기술전수자 명판 수여 ③ 전수지원금 지급(5년 이내) - 전수자 월80만원, 전수대상자 월20만원	①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②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에 한함) ③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서 가점부여 ④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서 가점부여 ⑤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 지원 ⑥ 언론보도
사업설명회	2015. 4. 3(금) 15:00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	-
선정자 발표	2015. 8월 중			

※ 자세한 사항은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②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gifts.hrdkorea.or.kr) 소식공간 → “공지사항” ③ 우수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http://pool.hrdkorea.or.kr) →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C 통해 공동경영... ‘성동+SPP’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특수목적법인〉

채권단, ‘부실’ 중건 조선사 통합작업 본격화

성동조선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자금을 수혈받게 되면서 가까스로 법정관리 위기를 넘기게 됐다. 채권단이 SPP조선에 이어 성동조선에 대해서도 추가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이들 중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공동경영과 함께 통합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6년째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중건 조선사는 성동조선을 비롯해 SPP조선, 대선조선 등으로 조선업계에 덕천 장기 불황에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채권단은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공동경영이나 통합 등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성동·SPP조선 회생길 마련...‘통합론’ 본격화 =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성동조선과 SPP조선, 대선조선 등 자율협약 중인 중건조선사 3곳의 관리 방안을 놓고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자율협약 체계 2년째인 STX조선의 경우 이들 조선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통합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대선조선의 주채권은행은 수출입은행이고 SPP조선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이들 중건조선사들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가 수주에 따른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채권단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들 업체를 둘러싼 다양한 해법을 검토한 바 현재 성동조선과 SPP조선 등의 통합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조선사들의 재무적인 상황이 달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 간의 이해 득실이 적잖은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우선 통합에 앞서 채권단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채권단이 이같은 통합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자율협약 졸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함이다. 지난 5년간 약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지만 조선업계 불황이 길어지면서 이들 업체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 조선사 중 일부를 통합해 전체 규모를 줄이면 비용절감과 수익성 확보에 유리해져 장기적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 경쟁업체 수가 줄어 수주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앞서 채권단이 중건조선사들의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자율협약 안에 수주 가이드라인(건조 원가 대비 이익 발생 수주만 허용)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채권단이 통합에 따른 공동 관리에 착수하면서 공공 구매로 건조원가를 낮추거나, 도크 공유, 공동 영업행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수주 경쟁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결국 채권단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채권단은 건조원가 정산, 선박대금 결제방식 등 조선산업의 수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추가적인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더 이상 출혈경쟁 방지할 수 없다’... SPC 설립 검토 = 채권단이 추진하는 통합작업 이면에는 금융지원에 의존하는 중건조선사 간의 출혈경쟁을 더이

“출혈경쟁 더이상 방지 안된다” 절박감
건조원가 낮추고 업체 줄여 수주 개선

조선업황 고려할 때 통합 불가피 판단
가능별로 별도의 SPC 신설방안도 검토

각각 재무상황 달라... 가치평가 주목
‘이해득실’ 輪銀·우리은행간 진통 예고

상 방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때문에 채권단이 대주주가 된 상황에서 공동 지주회사를 설립해 통합 또는 공동 경영하는 다양한 형태로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주채권은행 간의 이해득실이다. 성동조선은 경영정상화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반면 실적 리스크가 큰 SPP조선은 합병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성동조선 추가자금 지원을 놓고 고민이 깊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부실자산을 털어내야 하는 속제까지 안고 있는 우리은행 입장에서선 2대 채권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반대매수청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지자 손익계산 또한 복잡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황을 고려하면 최대한 조속히 통합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역시 성동조선과 SPP조선 등 중건조선사들의 공동경영 후 통합에서 합병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설계와 구매, 영업 등 통합 시너지를 점검한 후 법인 합병 여부 등 통합 수준에 대해 가닥을 잡을 계획이다. 이후 법인 간 합병뿐 아니라 인사·재무·경영관리의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상위 법인 신설, 설계·구매·영업 등 기능별 별도의 SPC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조속한 통합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가볍게 만들고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며 “공동경영 등을 통해 연착륙하는 것도 좋지만 대형조선사처럼 현실을 직시해 부실을 털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2010년 자율협약후 ‘퍼주기 지원’

3사에 쏟은 돈만 9조...6년째 완전자본잠식

출자전환에 만기연장...신규자금 수혈
지난해 성동조선 영업손실 3395억원
SPP-893억·대선-354억 ‘밑빠진 독’

2010년 자율협약을 체결해 6년째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SPP·대선조선의 경영 상황이 험사리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채권단이 해당 3사에 쏟아부은 자금만 9조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향후 조선업황에 대한 전망까지 어두워 금번에 투입되는 성동과 SPP조선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의 물자마 식의 퍼주기 지원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채권단이 성동·SPP·대선조선에 지원한 여신 규모만 8조9900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성동조선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5조230여억원에 달하며, SPP조선과 대선조선은 각각 2조9000억원, 1조670억원의 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조달 받았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3년 9월 136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실시했지만, 자본잠식 해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다시 한 번 100대 1로 감자 후 부채 가운데 절반가량인 1조6228억원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채권 만기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줬다.

SPP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역시 선수금 지급보증(RG)과 일반대출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상환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주고, 4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지난해 실시했다. 대선조선 채권단도 100대 1 감자 후 19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했다.

이들 조선사의 신규자금 지원만 떼어놓고 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성동조선은 2010년 3월 자율협약 개시 이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지원받았다. SPP조선은 지난 2010년 5월 자율협약 체결 이후 5년간 6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이번 달에 가결된 성동과 SPP조선의 신규자금 지원액만 1조원에 가까운 9060억원이다.

하지만 자금 지원 효과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액 3395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손실폭이 77% 가까이 늘었다. 당기순손실 역시 5793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80% 이상 손실폭이 커졌다.

다른 두 곳의 조선사도 영업손실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SPP와 대선조선 역시 지난해 각각 영업손실 893억원, 354억원을, 당기순손실 3301억원, 204억원을 기록해 몇 년째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홍넷 기자 byul104@

쉽고,편리한 투자의 시작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꼭!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추천종목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더 이상 종목 찾는 걱정 Zero!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매매타이밍 고민 NO!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 그대로 따라하면 끝!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의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취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987호(2014.06.20~2015.06.19)

담배수요 예측 실패 ‘건강기금’ 핑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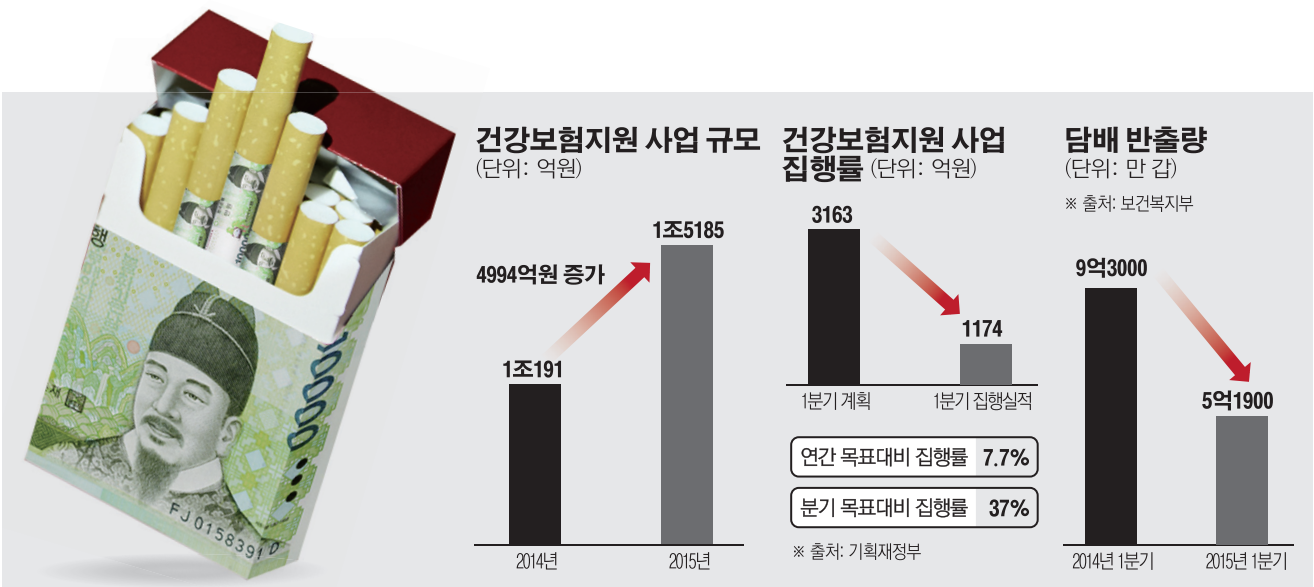
정부, 1분기 3163억 집행 예상
담배 반출량 절반으로 줄어
실제 집행 실적 1174억원 불과
부족한 자원 국고로 막을 듯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을 늘렸지만 점차 예상대로 세수가 늘지 않아 기금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핑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연간 계획 대비 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163억원의 집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1174억원에 불과했다.

국민건강증진 기금 내의 다른 사업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진 마찬가지다. 금연사업도 1분기 계획은 401억원 집행이었으나 실제 집행은 이보다 약 70억원이 부족한 323억원만 집행됐다. 보건의료연구개발도 계약 지연 등의 이유로 1분기 계획은 338억원이었지만 3월 말 기준 1억원만 집행됐다. 기금 내 사업 중 계획대로 집행된 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이 유일하다.

집행실적이 이같이 부진한 것에 대해 당



당 사업 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분기 담배 반출량의 저조로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혀 사업 집행이 계획 대비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담배 회사가 공장에서 반출해 간 담배는 5억 19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3000만 갑보다 4억 1100만 갑이 급감했다. 1월 1억 5900만 갑, 2월 1억 6000만 갑, 3월 2억 2만 갑 등 점점 반출량이 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담배 반출량이 10억 1100만 갑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예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으로 늘어나

는 세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7683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규모를 2조 28억원에서 2조 7176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지원 사업은 1조 191억원에서 1조 5185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 기금운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족한 자원은 공자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결국 국고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세수 핑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기금을

늘려 잡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1분기 사업 집행이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는 줄더라도 결국 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분을 만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소비량이 34% 감소하지만 세수는 2조 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연초에 담배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후반기로 갈수록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mpark@

당정 “작년 생산 쌀 6만톤 추가 매입”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쌀 수급 안정대책’ 당정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 생산된 쌀 6만톤을 오는 5월 추가매입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오른쪽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노동계 파업 이슈

노동계	정부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우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일반하고 요건 가이드라인)	청년취업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
단협 시정명령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 방해한 정부의 직권남용, 고용관계 등은 구체적 실태조사 후 검토 필요	고용개선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인권위 권고인 수용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확대 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인권위 권고, 부처간 협의 통해 신속히 검토

‘최악의 춘투’ 서막 올랐다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공무원·교직원·서울대병원까지

전국 16개 지역 총 30만명 참여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올해 춘투의 서막이 올랐다. 노사정 대화 결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와 노동계와의 팽팽한 기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서울대병원노조까지 가세한 동시다발적 노동계 투쟁에 노정 갈 등의 수위가 극단으로 치달는 분위기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 벌이는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공노, 전교조 등 30여만명이 참여한다. 2012년 이후 3년 만의 총파업 단행이다.

파업은 오늘 하루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5·6월엔 한국노총과의 공동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라며 “총파업 4대 목표의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도 본격화하

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날 서울대병원 노조도 병원 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공공기관 발(發) 춘투의 도화선에 불을 지졌다.

다만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태세에 돌입, 전교조 등을 압박하고 있어 실제 파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동계 파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대차노조는 간부만 총파업에 참여키로 해 파업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 의견 대립이 고조되면서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화결렬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일정을 못박자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고용개선 등 불법·불합리한 기업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지도’ 선언도 또 다른 노정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단협 시정명령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금주의 법안

전·월세가격 지수 고시 기준금리 3배 범위 개정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안입법 65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67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복수의 법안을 내놓길 쓴다. 이 의원은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군·구별로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토록 하며 △전세에서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에 3배를 곱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로렌스 라우 교수 “중국경제의 내일은…”



로렌스 라우(Lawrence J. Lau) 홍콩중문대 석좌교수가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중국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What makes China grow?)’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제 한때 900선까지 떨어진 원·엔 환율

수출 ‘발목’… 경기회복도 ‘빨간불’

수출입은행 수출액 감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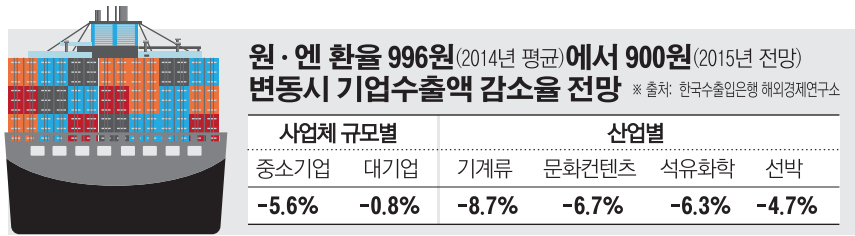
대기업 -1.8%·중·소 -5.6% 전망

불안한 환율이 수출전선을 잠식하며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23일 원·엔 환율 증가는 903.0원, 장중 최저치는 902.0원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0엔당 900원대를 간신히 사수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이 연세가 고착되면 한국경제, 특히 수출 분야에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업체와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100대 품목과 일본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겹치는 품목이 50개가 넘고,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상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엔 환



율 평균치인 996원이 현재의 900원대로 내려갈 경우 특히 기계류 분야에서 8.7%의 수출액 감소가 전망됐다. 문화 콘텐츠(-6.7%), 석유화학(-6.3%), 선박(-4.7%)도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의 수출액 감소율(-1.8%)보다 중소기업의 감소율(-5.6%)이 더 커져 경기회복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추산이다.

최근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유로존의 양적완화와 삼성전자의 실적 향상이 중첩되며 우리 증시에 글로벌 유동자금의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2013년 달러당 1095원 선에서 지난해

1053원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우리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4.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수출기업은 61개로 전년(53개)보다 1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23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늘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대책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경상수지 흑자 탓에 원화 가치가 요원하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환율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환율 개입에 나섰다가는 ‘환율 조작국’의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부동산·증시 훈풍에

4월 소비심리 3P ‘쑥’

CCSI 104…6개월 만에 최고

이달 소비자심리가 상승세로 전환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로 한 달 전에 비해 3포인트 올랐다. CCSI는 2003~2013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100)으로 삼아 이보다 수치가 크면 소비자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는 낙관적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CCSI는 연초 효과를 타고 지난 1월 1포인트, 2월에도 1포인트 상승했으나 3월에 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에 다시 반등해 작년 10월(10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소비자심리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악화된 후 정부와 한은의 경기 부양책에도 이렇다 할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자심리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직전 수준인 작년 3월의 108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지난해 연소득이 500만원 오른 김유선(35·가명)씨는 임금이 올랐지만 그리 반갑지 않은 않다. 오른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4만 9750원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말정산 때 120만원을 더 냈고 이달에도 15만원이나 토해내게 생겼다. 2월과 4월은 죽음이 달이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씨처럼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전체 직장인 5명 중 3명꼴이다. 반면 지난해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달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함께 작년도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거나 환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의 건보료는 2013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매겨 거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 인상되거나 인하된 월급 수준은 반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다

음해 3월, 즉 올해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다.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난 뒤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을 통해 정산한다.

건보공단이 2014년도분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는 1268만명이다.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은 평균 24만 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낸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 4000원을 건보료로 더 내야 한다.

정산 대상자의 20.0% 비중을 차지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 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가입자가 돌려받는 돈은 평균 7만 2000원이다. 한편 추가 보험료가 많아 부담이 될 경우 건강보험 정산액 분할제도에 따라 3개월, 5개월, 10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김부미 기자 boom@

성완종 파문에… 단통법 개정 ‘공염불’

여야갈등 고조… 통신비 인하 등 관련법 법안소위 상정 안돼 ‘무기한 연기’

지난해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과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처리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건의 법안 가운데 통신요금이나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음주인 27일에 있을 3차 법안소위에 올라 갈 14개 안건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모두 15건에 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건, 단통법 개정안이 4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

정안 1건이다.

대표적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지난달 발의됐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 개정안도 발의가 공중 무여였다.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

들이 지난해 10월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가운데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내놨다. 한명숙 의원 등은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외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 법안, 전병헌 의원의 단통법 폐지 법안 등도 말만 무성할 뿐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법안 논의가 미뤄지는 데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에는 ‘정유회 문건’ 논란으로 법안소위 자체가 무산됐다. 올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으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돼 있고, 미방위원장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여야간 이견이 큰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단통법 및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보다 1회성 인기몰이식 법안 발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진적인 법안이지만, 의원들이 언론플레이를 위해 내놓은 법안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박성제 기자 psy@

경남기업에 특혜 준 ‘금감원’ 알고서도 꼬리자른 ‘감사원’

금감원,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 감사원, 탐장문책으로 끝내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 탐장팀장의 문책만을 요구했을 뿐, 최수현 전 원장을 비롯한 고위직 책임은 묻지 않아 ‘꼬리 자르기식 감사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인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선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무상감자를 결정,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당시 금감원 탐장 국장과 탐장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고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탐장 문무일 감사장)은 23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팀은 이들에 걸쳐 이씨를 조사한 뒤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좌영길·김미영 기자 jyg97@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3일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장 회장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매년 2억 달러 규모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검찰은 동국

제강이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고철을 수입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후판과 봉강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로부터 수입한 고철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차액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해외법인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장 회장은 또 동국제강 미국법인 등에

서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건물관리업체인 페럼인프라, IT계열사인 DK유엔씨 등을 통해 내부거래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동국제강은 미국 중국 브라질 등 모두 7개 국가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 jyg97@

일광공영 공범 추가 적발

합수단, 이규태 수사 확대

방위사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범을 추가 적발했다. 또 이 업체와 유착한 군무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와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 전 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장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일광공영은 지난 2009년 타기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정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이고 대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납품대금만 배(倍)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이 같은 비리를 주도한 이규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범을 찾아내는 한편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成 특검’ 초읽기… 갈 길은 ‘구만리’

여야, 수사 대상·범위 놓고 이견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수사 범위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때문에 양당이 큰 틀에서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실제로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과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의원이 받은 두 번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특검 도입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범위 및 근거 법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완종 사건은 물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도 함께 특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제시한 상설특검법 대신 별도의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상설특검법에서 7명의 특검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조항이 대통령 핵심 측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양당간의 특검 도입에 문제를 놓고 입장 차가 확연하게 갈리면서 정국이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삼성 계열사 ‘제일모직’ 5년만에 세무조사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5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주부터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일모직은 삼성에버랜드 시절인 2010

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받았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2015년도 지역냉방보조금 신청 안내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보조금 구분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중설 또는 교체 포함) 한 자
지역냉방 설계보조금	설치보조금 대상설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 단, 아래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② 시험용, 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③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던 중고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④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 예산규모 : 40억원

- 지원단가
- 설치보조금

구 분	200 USRT 이하	200 USRT 초과 ~ 500 USRT 이하	500 USRT 초과
지원단가	10만원/USRT	7.5만원/USRT	5만원/US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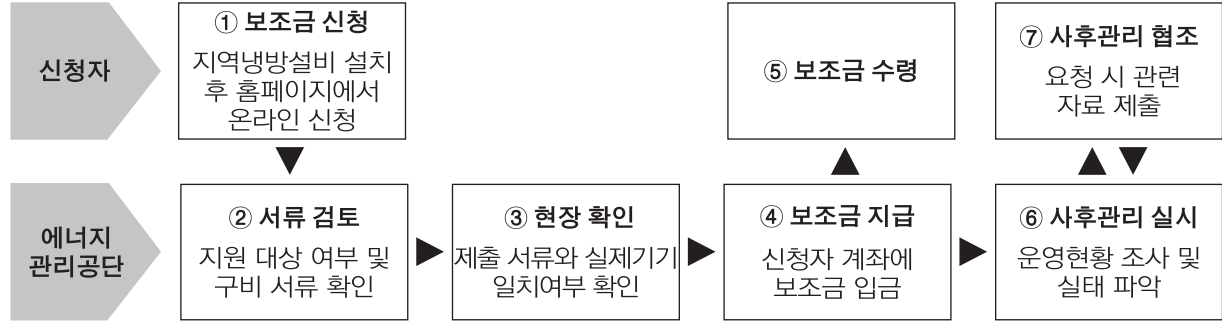
- ☞ 누적용량(USRT)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 ☞ 냉수를 이용하는 지역냉방설비일 경우, 냉방열교환기 환산기준단위 적용 (1USRT=3,024kcal/h, 3.52kW)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년 3월 18일부터 ~ 당해 예산소진 시까지
- ※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 031-260-4452 ~ 3, FAX 031-260-4459

■ 지급절차

- 지급절차



※ 단,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조치 및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신청 시 첨부서류

설치보조금	설계보조금
① 지역냉방 설치보조금 신청서 ②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또는 사용검사필증(건물임시사용승인서) 1부 ⑥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 1부 ⑦ 지역냉방설비 설치사진 (전경 및 명판) ⑧ 지역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① 지역냉방 설계보조금 신청서 ②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원(100만원 이상 신청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⑤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⑥ 지역냉방설비 장비일람표, 배관평면도 ⑦ 엔지니어링 활동주제증 또는 기술사개설등록증 사본 1부

은행, 우량기업엔 '저리'... 저신용기업엔 '고리'

中企 대출 금리차 더 벌어졌다

1-3등급 0.33%P 낮아질 때
7-10등급은 0.93%P 높아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거래처로 유치하기 위해 저리의 대출을 해 주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는 가산금리를 더 높여 수익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등 15개 은행의 지난 3월 말 기준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44%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18%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금리 하락 수혜는 대부분 우량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1-3등급 중기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4.34%에서 지난달 4.01%로 0.33%포인트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7-10등급 대출금리는 7.93%에서 8.86%로 되레 0.93%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지난달 우리은행의 1-3등급 대출금리는 3.88%에 불과하지만 7-10등급 대출금리는 12.47%를 기록했다. 그 격차가 8.59%포인트에 달한다.

전북은행 역시 우량 중소기업에게는 4.78%의 대출금리를 책정했지만 저신용 차

은행명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평균금리
국민	3.83	5.74	8.55	10.41	11	6.76
신한	3.54	3.95	4.66	6.91	10.35	4.63
우리	3.88	3.15	4.58	5.54	12.47	5.14
하나	3.92	4.73	5.61	5.34	7.96	4.54
외환	3.27	4	5.38	7.56	9.67	5.3
기업	4.89	6.23	7.89	9.18	6.69	6.29
농협	3.44	4.19	5.47	8.16	8.23	5.49
산업	2.71	4	4.89	8.49	8.95	4.72
수협	4.35	5	5.46	6.85	9.53	5.38

주에게는 13%가 넘는 금리를 받아 그 격차가 8%포인트를 넘었다.

KB국민(7.17%P), 신한(6.81%P), 외환(6.4%P), 산업(6.24%P) 등도 타 은행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리차가 컸다.

중소기업 대출 마진은 최대 0.05%포인트에 달한다. 0.02%포인트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수익성이 높다.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은행들이 중기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1분기 은행들의 중기 대출이 522조원을 넘어서며 7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출 확장은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은행들은 신용등

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의 금리를 더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리스크(위험)를 보완하고 있다.

환율변동 및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은행 문턱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은행 중기대출 담당자는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신용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여신을 집행하고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칠레 산티아고 웨라호텔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칠레서 '창조경제 전도사'로

〈KDB산업은행〉

비즈니스 포럼 참석 '뉴노멀시대 해법' 제시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에서 뉴노멀시대의 해법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산은은 홍 회장이 지난 22일 칠레 산티아고 웨라호텔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경제현황과 전망, 창조경제 정책 등을 소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와 칠레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박근혜 대통령, 윤상직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등 한국 측 인사 150여명, 알베르토 아레나스(Alberto Arenas) 재정부 장관, 알베르토 운두라가(Alberto Undurraga) 행정자치부 장관 등 칠레 측 인사 15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홍 회장은 "올해도 한국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한국은 저성장을 화두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은은 뉴노멀 시대에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등 기술력 평가에 근거한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도 강조했다.

한편, 산은은 한-칠레간의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기회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칠레의 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기택 기자 byul0104@

김용환 '成 리스크' 털고 'NH 지휘봉' 잡을까

〈NH금융 회장 내정자〉

오늘 내정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김용환(사진) 농협금융 회장 내정자가 24일 오후 진행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직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심사로 예상됐지만,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 김 내정자가 거명되면서 쟁점이 복잡해졌다. 김 내정자가 행장으로 있던 수출입은행이 담보를 포함해 경남기업에 지원한 돈이 채권은행 중에서 가장 많았고, '성원중 다이어리'에 김 내정자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실화한 경남기업 지원과정에서 채권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김 내정자가 취업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직자위원회가 다룰 안건은 4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심사는 퇴직 공직자가 이전에 근무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 내정자가 2011~2014년까지 은행장을 맡았던 수출입은행과 농협금융권 전 관여우 문제를 일으킨 직무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

이다. 재무부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을 거친 김용환 내정자가 농협금융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도 통과에 힘을 실어 준다.

농협금융은 심사 통과를 낙관하고 새 회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날짜를 오는 27일로 잡았다. 강구규 기자 kkk@

'1인자'만 웃는 '보험왕' 관행 사라질까

삼성생명 제도 개선... 업계 확산 주목

보험사는 매년 봄이되면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연도대상은 보험사가 그해 실적이 가장 좋은 설계사를 선정해 수상하는 행사로, 방송국이나 영화계의 연말 시상식과 비슷하다. 설계사들은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연도대상을 꿈꾸며 영업전선에 뛰어들다.

문제는 연도대상 수상자가 매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연도대상에서 수상한 설계사들을 보면 한 인물이 편중돼 있다. 미래에셋생명 과 KDB생명의 연도대상에서 수상한 설계사는 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롯데손보와 MG손보는 3년,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등은 2회 연속 같은 인물

이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설계사는 나이·성별·학력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영업 실적으로 평가 받는다.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설계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설계사와 포화된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보험왕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은 최근 57년째 이어온 연도대상 수상자 선정을 과감하게 바꿨다. 1인 보험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정한 소정의 기준을 달성한 모든 설계사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연도대상에는 총 1만여명이 참석해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삼성생명의 보험왕 제도 개선이 향후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임직원·FP 2만5000명이 봉사단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한화생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사업 성과 이상의 중요한 요소다. 대외적 신인도와 이미지로 연결되는 CSR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정성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이 필수라 됐다. 한화생명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의 핵심은 임직원과 FP(재무설계사) 등 모두 2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한화생명 전 임직원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



한화생명의 어린이 경제캠프.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LIG for Tomorrow

[희망은 자란다]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 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 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일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4-2764호(2014.12.15)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기일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4년 만에 최저 비상결린 현대차

美·中 공장 늘리고 SUV 판매 고배

1분기 영업이익 1조5880억… 작년보다 18%나 떨어져

환율하락·수입차 공세에 발목… “美 2공장 증설 검토”

‘투싼’ 하반기 북미·유럽 등 출시… 57만대 판매 목표

현대자동차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 쳤다.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선 환율이 발목을 잡았고, 국내 시장에선 수입차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렸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공장 증설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량 확대로 부진을 정면 타개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1분기 118만2834대를 판매해

매출 20조9428억원, 영업이익 1조588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판매 대수는 3.6%, 매출액은 3.3%, 영업이익은 18.1% 각각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0년 4분기(1조237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한 15만4802대를 팔았고, 해외에서도 3.6% 줄어든 102만8032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등 수요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증산을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린다. 더불어 신형 ‘투싼’의 글로벌 판매 확대 등 SUV 증산 계획도 내놔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재경본부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국 수요가 올해 1680만대, 2017년도에는 1750만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공장 규모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미국 제2공장 증설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지 생산량의 한계로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2013년 44%에서 올해는 46%로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 공장 증설과 함께 SUV 등 어떤 차종을 투입할지도 종합적으로 검

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선 이미 공장 증설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허베이성 창저우 제4공장을 착공했다. 이 공장은 20만대 규모로 완공 이후 30만대 규모로 증산한다. 이 회사는 또 올해 3분기에 30만대 규모의 총칭 제5공장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중서부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출시한 신형 투싼의 글로벌 판매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투싼을 내달 북미, 7월 유럽, 10월 중국 등 순차 출시하기로 했다. 최근 늘고 있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SUV 생산량도 늘릴 방침이다. 신형 투싼의 내년도 글로벌 판매 목표는 57만대다.

김범근 기자 nova@

산업계 다시 엔저 공포… 車·조선 비상 “日 LNG선 수주 확대 위협적”

엔저 공포가 산업계를 또 한 번 덮쳤다. 23일 오전 한 때 원·엔 재정환율은 2008년 2월 이후 7년여만에 처음으로 100엔당 900원선이 무너졌다.

엔저의 충격과는 자동차 업종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현대자동차의 올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판매 부진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한 매출액이 줄거나, 외국 통화로 표시한 제품의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 현대차는 올 1분기 해외 판매량이 3.6% 줄어들며, 해외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반면, 일본 도요타는 올 1분기 미국 판매량이 10.5% 늘면서 점유율이 13.9%에서 14.6%로 높아졌다. 앞서 도요타는 엔저

수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6927억원(약 6조6500억원)으로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도요타의 2014 회계연도의 총매출은 27조538억원(약 247조원), 영업이익은 2조2220억원(약 20조원)을 기록, 6년 만에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국내 조선업계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일

본 조선업체들은 엔저 효과를 등에 업고 지난 1월 월간 선박 수주량에서 7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가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js62@

‘신형 스포티지’도 1.7ℓ 탑재
엔진 다운사이징 가속화

현대기아자동차가 배기량 1ℓ대 차량을 잇따라 선보이며 엔진 다운사이징을 가속화하고 있다.

24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하반기 출시되는 기아차의 ‘올 뉴 스포티지’는 1.7ℓ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 이 차량에는 앞서 출시된 현대차의 ‘올 뉴 투싼’과 같은 구동계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 뉴 투싼에는 U2 1.7ℓ 디젤 엔진(사진)과 7단 DCT(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됐다. 기존 2.0ℓ에서 배기량이 다운사이징된 이 모델은 소비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올 뉴 투싼의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배기량 다운사이징 전략은 다른 차종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1.7ℓ 쏘나타와 신형 K5에는 1.6ℓ 가솔린 터보와 1.7ℓ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연내 국내 시

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1.6ℓ 터보와 1.7ℓ 디젤 모두 7단 DCT가 장착된다.

기아차의 신형 K5 1.6ℓ 터보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이 200마력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량은 줄었지만, 기존 2.0ℓ 가솔린 모델의 177마력보다 출력은 오히려 늘어났다. 연비도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미국과 중국에 출시된 LF 쏘나타 1.6ℓ 터보 모델은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전체 LF쏘나타 판매의 25%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이외에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차 ‘SM5’는 이미 1.6ℓ 터보 모델과 1.5ℓ 디젤 모델을 판매 중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포카리스웨트, 라벨 속 경품행사



동아오츠카 직원들이 23일 서울 용두동 동아오츠카 본사에서 포카리스웨트 누적 매출 2조원 돌파를 기념하며 페트병 자원순환에 동참하는 ‘포카리스웨트와 함께 하는 블루라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는 8월 17일까지 함께 진행되는 라벨 속 행운번호 경품행사는 블루라벨이 적용된 포카리스웨트 500㎖, 620㎖, 1.5ℓ와 캔 제품에 적힌 행운번호를 블루라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에 접속해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신태원 기자 holijak@

세련되고 스포티한… 볼보 신형 ‘S60’

306마력 2.0ℓ…R-디자인 적용

볼보가 ‘S60 T6 R-디자인’을 출시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306마력의 2.0ℓ 신형 엔진을 탑재한 S60 T6 R-디자인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차는 기존 S60에 R-디자인에 스타일링 패키지를 적용, 보다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신형 T6엔진은 다운사이징 2.0ℓ 4기통 엔진으로 수퍼차저와 터보차저를 동시에 적용했다. 최대 출력 306마력, 최대 토크 40.8kgom의 파워풀한 성능을 갖췄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5.9초 만에 도달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볼보 차량 중 가장 뛰어난 파워를 자랑한다. 여기에 차체 강성을 강화한 R-디자인 전용 스포츠 새시와 전용 19인치 휠, 기어 시프트 패들을 적용했다.

엔진의 배기음을 증폭시키는 액티브 노



이즈 컨트롤(ANC)도 새롭게 탑재했다. ANC는 엔진의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엔진의 속도와 토크에 대한 정보를 수신, 차량용 스피커를 통해 엔진의 배기음을 증폭, 운전자의 주행 감성과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가격은 5750만원.

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해 2976대를 판매하며 1988년 한국 진출 이래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8% 증가한 수치로, 수입차 평균 성장률인 25%를 훌쩍 뛰어넘었다.

김범근 기자 nova@

담배 판매량 급감에도… KT&G는 ‘방긋’

1분기 영업이익 4285억 65% ↑

인상 전 재고 풀어 수익 늘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KT&G가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KT&G는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4285억35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4.7%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1369억원으로 18.0%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3088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KT&G는 영업이익 28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급증

했다. 세금이 오르기 전에 담배를 사두자는 가수요가 물리면서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KT&G의 1분기 호실적은 애초 담뱃값 인상 이후 판매량 급감으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전망을 뒤집은 결과여서 업계는 물론 증권가에서도 놀라는 모습이다. 가격 인상으로 판매량은 41.4% 줄었지만, 매출과 이익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KT&G는 1분기 예상을 뒤집는 실적을 거둔 이유에 대해 1회성 유통수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 인상 전 공장에 쌓여있던 담배가 1~3월 집중적으로 풀리면서 이익과 매출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철규 기자 yoonck@

한진칼, 6월말까지 정석기업 합병

〈투자사업부문〉

한진그룹, 지주사 전환 마무리

한진그룹이 ‘한진칼-정석기업 합병’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한진그룹이 2013년 8월 대한항공을 분할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결정한 이후 2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진칼은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인적 분할되는 정석기업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분할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석기업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물관리 등 사업부문과 ㈜한진 지분(21.63%),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100%)을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분할한 뒤, 투자부문은 한진칼과 합병하게 된다.

한진칼과 정석기업 분할합병 비율은 1대 2.3643718이며 합병 기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5.33%)을 매각해 ‘한진칼→정석기업→한진→한진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은 데 이어 ‘통합지주사→정석기업(사업부문)·한진’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됐다.

2013년 8월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상 2년 내에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손자회사인 ㈜한진 등이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지 않지 않을 뿐 아니라 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공동출자 형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지면 ㈜한진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가게 된다. 즉 한진그룹은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지주사 전환은 완전히 마무리 된다.

물론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7.95%)도 남은 과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해당 지분을 오는 7월까지 시간의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휴대전화 소액결제업계 ‘함박웃음’

한도 50만원으로 인상… 올 시장 4조6000억 기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가 요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분위기다.

24일 휴대폰 소액결제업체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상한선을 50만원까지 늘리기로 결정,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 고속성장의 길을 텃었다. 지난해 4조원 규모의 시장이 몇 년 내에 6조~7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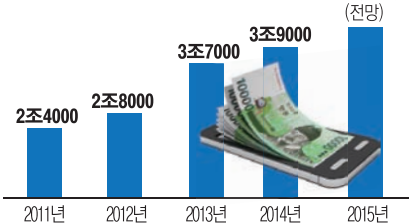
휴대폰 소액결제가 50만원으로 상향되는 올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7% 성장에서 두 배인 15%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업체에서는 지난해 4조원 규모의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이 올해에는 4조6000억원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업계 관계자는 “매년 성장세를 고려해도 올해 시장 규모가 4조6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듯 하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단순 계산해 해도 몇 년 내에 6조~7조원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대폰 소액결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조정을 고려해 실적목표를 다시 잡아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열린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이듬해 2001년 842억원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규모

단위: 억원



으로 급성장한데 이어, 2002년 2894억원, 2003년 4959억원으로 커졌다. 이후에도 매년 20~3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4년 30.3%에 이어 2005년 31.5%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2006년 12.9%로 다소 주춤했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8.8%로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2012년 16%, 2013년 29.9%로 다시 성장가도를 달렸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정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 해이다. 2014년에는 5.9% 늘어나면서 4조원 규모를 형성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KG모바일리츠와 다남이 양분하고 있다.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대 이상을 확보하며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어 3위인 갤럭시아카데미가 4%를 확보, 1, 2위 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어린이 위한 ‘키성장솔루션 업’

야쿠르트 아줌마 통해 만난다

10~15세 100명 시험 효과 입증

한국야쿠르트가 흡소핀을 통해 출시한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키성장솔루션 업’을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야쿠르트는 ‘키성장솔루션 업’을 매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꾸준히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해 섭취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고객들은 야쿠르트 아줌마로부터 키성장에 주요 정보를 직접 듣고 실천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키성장솔루션 업’은 천연 한방소재인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이하 HT042)’을 주원료로 만들었다. 12주간 신장 하위 25% 미만인 10~15세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한 결과, ‘HT042’를 매일 섭취한 아이들은 비섭취군의 아이들에 비



해 17%(3.3mm) 더 성장했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HT042’는 국내 최초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았다.

‘키성장솔루션 업’은 지난 7일 출시 후 흡소핀 방송 2회 만에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내년 수출 비중 10%로 점프”... ‘토종 SW 말형’의 도전장

월드클래스를 향해

② 이흥구 한글과컴퓨터 부회장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국내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SW) 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시장에 맞는 워드프로세서 ‘아래아한글’로 입지를 구축하면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 SW 오피스 시장을 이끌고 있어서다.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응해 토종기업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SW 업체이기도 하다.

아래아한글로 국내에서 SW업체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한컴이지만 해외 시장의 성과는 다소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도 힘이 부쳐 시선을 해외로 돌릴 여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SW업계 ‘말형’인 한컴은 최근 해외 시장으로 조금씩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더 이상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그리고 국내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큰 몫을 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엔 2010년 취임하며 한컴의 외형적 성장을 이끌어온 이흥구 대표이사 부회장이 있다.

최근 판교 한컴 본사에서 만난 이 대표는 회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했다. 기술력엔 자

오피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도 현지에 맞는 한컴의 아래아한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올 3분기 안에 출시해 하반기엔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기존의 ‘한컴오피스’라는 브랜드를 계속 쓸지, 해외의 ‘핑크프리’를 쓸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할 것인지는 다음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글로벌향 설치형 오피스 출시를 통해 오는 3~4분기엔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는 “글로벌향 설치형 오피스의 주요 시장은 영어권 지역과 중동이 될 것”이라며 “우선 미국과 호주를 생각하고 있고, 아랍어 버전도 완성된 만큼, 중동시장에도 박자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컴은 이미 중동시장 진출 준비에 착수한

1990년~현재 ‘아래아한글’ 입지
삼성 등 스마트폰에 오피스 공급
올 초 유럽 10개국에 수출 성과

신이 있지만 아직까지 수출에서 큰 족적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이 대표는 “현재 한컴의 해외사업은 전체 매출의 6~7%로 사실상 비중이 낮다”면서도 “수출통계엔 잡하지 않지만, 한컴의 모바일 오피스는 삼성 등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공급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는 수억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기술과 제품 자체에 자신감이 있다는 이 대표 나름의 표현이다. 이어 “지금까지 해외매출 대부분은 모바일 오피스와 클라우드에서 나왔는데, 클라우드 오피스의 경우 좀 더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클라우드의 경우 매출의 90% 정도가 유럽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컴은 앞으로 수출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이 대표의 최우선 숙제이기도 하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수출 비중 10%를 넘겨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올해는 약 7~8%까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고, 내년에는 무조건 10%를 넘긴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올해 글로벌향(向) 설치형

글로벌 노린 설치형 오피스 선배
영어권·중동 지역 타깃으로 개발
‘넷피스24’ 출시 클라우드 고배

상태다. 중동시장은 우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자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이 많아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중동지역에선 현지 국가와 공동기술 개발이라는 테마로 진출하려고 이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동지역 사업 진출은 상대적인 부분이 많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올해 말까지 가시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컴은 올 초 유럽 10개국에서 수출 성과를 보이는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엔 직원들의 열정과 성실성이 있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3년여 전 진행됐던 독일의 이메일 포털기업 ‘원앤원’과의 계약 건이다.

그는 “원앤원이 한컴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받아 들였던 이유를 들어보니 요청 사항을 발송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응대하는 직원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더라”며 “계약시날 원앤원 대표가 나에게 ‘당신을 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 직원들을 보고 하는 계약’이라고 말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대표는 최근 클라우드 오피스 ‘넷피스24’를 출시하며 클라우드 사업에도 고배를 죄고 있다. 구글



이흥구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내 글로벌향 설치형 오피스를 출시하고 내년까지 수출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뛰어든 시장인 만큼 차별화에 대한 업계의 의문점도 존재한다.

그는 “우리의 차별점은 ‘플랫폼을 오픈’한다는 점. 즉 클라우드상에서 모든 SW 역량을 병렬로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OS나 프로그램이든 우리 플랫폼에서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1차적 목표는 가입자 확대다. 가입자 저변이 확대돼야 한컴 서비스 수요가 늘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12개월 안에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 가입자 1000만명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외 사용자들도 많은 만큼, 이들을 넷피스 가입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 해외마케팅과 통신사 공동 프로모션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한컴의 활발한 움직임과 맞물려 최근 회사의 실적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지난해 한컴의 영업이익은 2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늘었고, 순이익과 매출액도 217억원, 762억원으로 각각 25%, 11% 증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4년 6개월여 만에 이끌어낸 성과다. 이 같은 성과에 지난해엔 중소기업청의 대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도 선정되는 등 최근엔 한국형 하든컴퍼언으로서의 면모도 키워나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자신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통인 MS, 구글과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 ‘제로(0)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더 좋습니다. 98%를 점유하고 있는 MS의 5%만 가져올 수 있으면 한컴 매출의 20~30배인 만큼, 자신감과 큰 배포를 갖고 움직여야지요.”

다부진 이 대표의 자신감 만큼 한컴의 향후 성장에도 속도가 붙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유 기자 thec98@

공동기획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피스 전문업체서 종합 ‘IT기업’ 거듭

음성인식 자동번역 개발 본격화
핀테크·헬스케어 등 R&D 돌입

오피스 기업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져온 한글과컴퓨터가 음성인식 자동번역, 헬스케어, 핀테크 등 전방위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간다. 오피스 전문기업에서 탈피해 종합 IT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이흥구 한컴 대표는 2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컴은 오피스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는 전문기업이라는 인식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미래 성장의 한계로도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며 “전방위적인 투자를 단행해 종합적인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은 보다 다양한 솔루션을 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컴은 이미 음성인식 자동통역 분야 기술 개발을 본격화했다. 이외에도 헬스케어와 핀테크 분야 개발 계획을 세우고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다.

이 대표는 “결국 해외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피스 회사입니다’라고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다양한 솔루션으로 제품을 다각화해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컴은 일단 내부적인 역량으로 포트폴리오와 사업군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2010년 이 대표 부임 이후 제품 포트폴리오를 PC용 오피스에서 모바일 오피스, 웹오피스 등 디바이스와 OS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했고, 다국어 오피스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군도 디지털 이미지 편집, 모바일 프팅팅, 전자책 등으로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오피스를 출시, 서비스 형태의 사업영역에 진출한 바 있다.

한컴은 이같이 내부적인 역량으로 신사업에 진출함과 동시에 인수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키워나가거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아울러 어느 정도 성장한 사업 부서의 경우 자회사로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결정을 단순화해서 더욱 탄력적인 시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자회사를 내면 결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책임도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회사를 좀 더 ‘컴퍼니 인 컴퍼니(회사 안의 또 다른 회사)’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제 기자 psj@

100인 기부릴레이
since 2003

100인 기부릴레이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30일간의 기부축제입니다.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친구야, 기부하자!

좋아하는 사람들, 매일 보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세요!

100인 기부릴레이는 안전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달립니다.

서로 돌보는 따뜻한 사회, 한국여성재단이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립지원 363명 지원

여성친화정책제안 290명 지원

폭력예방 및 인권증진 4,450명 지원

성평등문화조성 및 확산 2,212명 지원

여성역량강화 229명 지원

참가신청

전화 02-336-6463 팩스 02-336-6459

이메일 womenfund@hanmail.net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relay2015

신청기간 2015년 3월 24일 ~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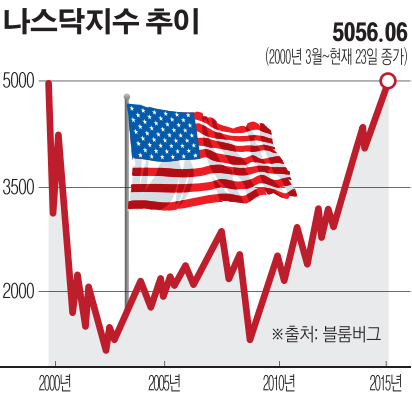
후원계좌 국민 079801-04-001536 농협 1279-01-000251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승승장구’ 나스닥… 15년 만에 ‘닷컴버블’ 지웠다

2000년 3월 최고치 경신… 5056.06으로 장 마감
엇갈린 기업실적·경제지표 부진에도 낙관론 지속
애플·구글 비롯 생명공학 관련주 상승세 이끌어

미국 나스닥지수가 1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닷컴버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됐다. 나스닥지수는 23일(현지시간) 전일 대비 0.41% 상승한 5056.06으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0년 3월 10일 찍었던 기존 사상 최고치인 5048.62 기록을 15년 만에 갈아치웠다. 팻 베커 베커캐피탈매니지먼트 펀드매니저는 “투자자들은 경제가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성장하는 종목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투자자들이 성장주가 포함된

나스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스닥은 2000년 닷컴버블 붐과 이후 31개월에 걸쳐 78% 빠졌고 거기서 다시 올라서는 데 12년 이상이 걸렸다. ‘닷컴버블’을 넘어서기까지 오랜 여정을 거쳐야 했던 것. 블룸버그통신은 애플 주가가 닷컴버블 이후 132배, 구글이 13배 오르면서 나스닥 회복세를 이끌었다고 풀이했다. 나스닥은 지난 2002년 10월 바닥을 찍은 후 350% 이상 올랐다. 기술주 이외 생명공학 관련주들도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길



리더드사이언스가 지난 1년간 52%, 암젠이 46%, 바이오젠이 47% 각각 올랐다. 나스닥지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닷컴버블이 절정에 이르렀던 2000년 나스닥에서 기술주 비중은 65%에 달했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43%로 떨어졌다. 또 나스닥을 구성하던 종목도 2000년 3월의 4824개에서 현재 2569개로 줄었다. 15년 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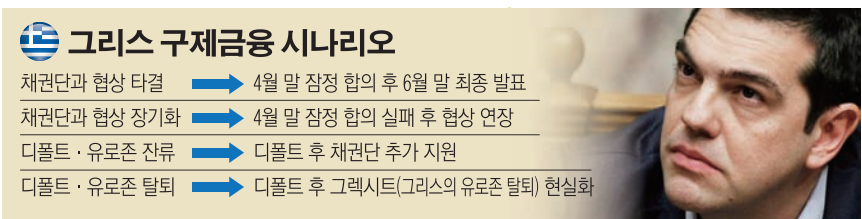
스닥 30대 종목 안에도 들지 못했던 애플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이 됐다. 현재 나스닥 3위인 구글은 닷컴버블 붐과 이후 4년 후에야 증시에 상장됐고 4위 페이스북은 2012년 시장에 데뷔했다. 강달러와 신흥시장 경기둔화 등 악재로 인해 기업실적이 엇갈리고 이날 나온 경제지표가 부진했지만 시장의 낙관론을 꺾지는 못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9만 5000건으로 전주 대비 1000건 늘고 시장 전망인 28만7000건도 웃돌았다. 3월 신규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11.4% 급감한 48만 1000채로 전월의 54만3000채(수정치)와 전문가 예상치 51만5000채를 밑돌았다. 4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4.2로 전월의 55.7과 갈을 것이라던 시장 전망을 벗어났다. 제너럴모터스(GM)와 펄스코, 프록터앤갬블(P&G) 등은 달러 강세 역풍으로 매출

이 감소하거나 시장 전망을 밀도는 등 부진했다. IT 관련주도 약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나스닥의 질주를 주도했다. 24일 애플워치 출시를 앞둔 애플은 주가가 0.82% 상승했다. 이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은 시장 전망을 밀도는 성적을 내놓았으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3% 이상 급등했다. 구글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순이익은 4% 각각 증가했다. MS는 같은 기간 순이익 12% 줄었으나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7분기 연속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아마존은 순손실이 5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00만 달러 손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그러나 시장은 아마존 매출이 15%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그렉시트냐, 그림보냐… 그리스 ‘운명의 날’

〈그리스 사태 장기화 조짐〉

‘유로존을 떠날 것인가, 모호한 상태로 계속 남을 것인가’ 그리스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구제금융 72억 유로(약 8조4000억원) 지원을 놓고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그룹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동안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회의를 갖는다. 이번 정책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스가 채권단이 요구했던 수정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 모두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 추측에서다.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펴내고 있다. 향후 예측할 수 있는 그리스 사태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그리스와 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한다면, 그리스

는 다음달에 지급해야할 연금과 공무원 임금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협상 최종 기한을 6월 말로 잡고 있다. 이에 두 달 이내

오늘부터 이틀간 유로그룹 정책회의
그리스 수정 개혁안 거부로 협상 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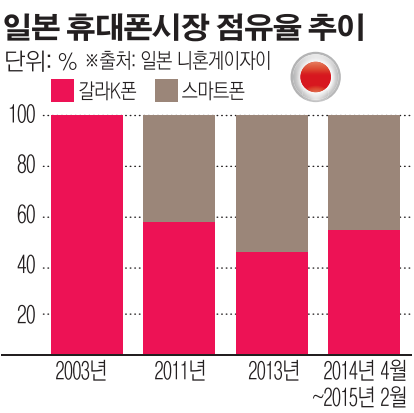
에 협상을 종료짓기 위해 그리스가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진행 상황에 따라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그리스는 이달 연금과 공무원 임금 지급을 위해 현금 4억 유로가 필요하고, 다음달까지는 IMF에 빌린 돈 10억 유로(1월 2억300만 유로, 12월 7억 7000만 유로) 갚아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지난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 달만

에 다시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는 충분히 양보했다”면서 채권단의 협상 타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렉시트란 용어를 처음 만든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하자 최근 보고서에서 전국과 지역 의 중간 영역인 ‘LIMBO’에 ‘GREECE’를 결합한 ‘그림보(GRIMBO)’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전을 각오하라”며 “그렉시트가 조만간 일어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종착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日 ‘갈라파고스폰’ 사라진다

독자 OS폰 2017년부터 생산 중단 ‘안드로이드’ 통일

일본의 이른바 ‘갈라파고스폰’이 멸종되고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은 아군을 새로 얻게 됐다. 파나소닉 등 일본 휴대폰 제조업체가 자국의 독자 운영체제(OS)를 탑재한 휴대폰인 일명 ‘갈라K’ 생산을 2017년부터 중단한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갈라K’는 일본 고유 인터넷 서비스인 ‘i모드’에 대응하는 휴대폰 OS로 일본 기업들이 내수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에 오랫동안 고립돼 독자적인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와 휴대폰의 일본어인 ‘케이타이’의 앞글자 K가 결합, 해당 OS를 탑재한 휴대폰은 ‘갈라K’로 불렸다.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진행돼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기존 휴대폰은 개발에 집이 됐다. 이에 일본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갈라K’를 버리고 OS 표준을 구글 안드로이드로 통일하려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NEC는 현재 NTT도코모에 갈라K를 공급하고 있지만 오는 2016년 3월 신규 기종 개발을 중단하고 2017년 3월은 생산도 끝낼 계획이다. 사실 NEC는 이미 2013년에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상태다. 후지쓰와 샤프 파나소닉 등 다른 업체



들은 단말기 OS를 안드로이드로 전환한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갈라K 전용 OS와 반도체를 개발하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판단에서다. 제조업체들은 중장년층에 인기가 높은 폴더형과 자판형 단말기는 계속 생산할 계획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OS는 ‘갈라K’가 아닌 안드로이드다. 일본 이동통신사도 기존 갈라K 판매를 점진적으로 종료하고 안드로이드 기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의 움직임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배준호 기자 baeh94@

최초 우주망원경 ‘허블’ 탄생 25주년… 7000광년 떨어진 ‘창조의 기둥’ 등 공개



세계 최초의 우주망원경인 ‘허블(HUBBLE)’이 탄생한 지 24일(현지시간)로 25주년을 맞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허블 탄생 25주년을 맞아 지난 2013~2014년 촬영한 천체 사진들을 공개했다. 위 사진은 지구에서 7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으로 ‘창조의 기둥’으로도 불린다. 우주 팽창설을 내놓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1889~1953)의 이름을 딴 허블 망원경은 지구 대기 중에서 빛이 찌그러지고 차단하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별과 우주의 탄생 기원을 연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AP/연합뉴스

“한국·중국·인도 3국
세계 사치성 소비 주도”

2009년부터 年 최대 18% 성장

한국, 중국, 인도 세 국가가 세계 사치성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인도의 명품 의류·신발 시장이 2009~2014년 기간동안 연간 16.8~18.4%로 성장했다고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세계 명품 의류·신발 시장 성장률 4.8%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품 의류·신발 외에 중국과 인도에서는 보석 소비가 급증했으며, 한국에서는 고가 주류 판매가 빠르게 늘었다.

아제이 싱 카푸르 메릴린치 주석 전략가는 “과거 5년간 중국인과 인도인, 한국인들이 고급 사치품 소비를 주도했다”며 “중국과 한국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보톡스와 화장품 등이 주목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계 사치성 소비 시장 규모는 4조5000억 달러(약 4874조원)로 집계됐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사치품 소비 증가율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던킨 vs 맥도날드
‘아침메뉴’ 전쟁

맥도닝 종일 판매 시범 운영에
던킨 모닝메뉴 시간 제한 없애

미국의 도넛 전문체인인 던킨도넛이 아침 메뉴를 종일 판매하기로 하면서 미국 패스트푸드업계에 ‘브레이크스트(breakfast)’전쟁이 시작됐다고 23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이날 던킨도넛은 모닝메뉴로 오전에만 한정 판매했던 치킨샌드위치, 크로와상도넛 등을 종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쟁업체인 맥도날드가 맥도닝 등 아침메뉴를 시간제한 없이 판매한다고 결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맥도날드는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오전 한정 메뉴를 종일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맥도날드 대변인은 “이번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아침메뉴 종일 판매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맥도날드는 판매 부진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메뉴 개발과 일부 메뉴의 레시피를 변경하고 아침메뉴 한정 판매를 완화하는 듯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던킨그룹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던킨도넛 매장의 매출이 회사의 예상치보다 2.7% 증가했다는 소식이 23일 회사의 주가는 7.94% 폭등한 51.51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기업공개(IPO)를 한 이래 하루 최대 상승폭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던킨도넛은 노스웨스트·하와이·알래스카 등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며 15~20년 후 미국 내 매장을 1만7500개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던킨도넛의 장미빛 전망과 달리 경쟁업체인 맥도날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전날 맥도날드는 개장한 지 13개월 이상 된 전 세계 매장의 1~3월 매출이 2.3% 떨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맥도날드는 최고경영자(CEO)를 바꿔가며 실적 개선에 초강수를 뒀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은 전 분기보다 또 감소했다. 특히 미국에서의 3월 매출은 3.9% 감소했고 4월에도 전진이 없을 것으로 회사는 판단하며 실적이 저조한 220개 매장을 추가 폐쇄할 계획이다. 이날 맥도날드의 주가는 0.86% 하락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샤오미 ‘미4i’ 공개
인도시장 노린다

아이폰6 4분의 1 가격
인도소비자 맞춤형 제품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신제품 ‘미4i(Mi4i)’를 선보였다. 샤오미는 2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1500여 명의 열성팬이 모인 가운데 ‘미4i’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4i’는 저가폰이 주력인 인도의 상황에 맞춰 가격을 1만2999루피(약 22만원)로 책정했다. 이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애플 16GB 아이폰6의 4분의 1 수준이다. 미4i는 5인치 풀HD(1920X1080) 화면, 2GB 램, 16GB 저장공간, 전후면 각각 500만·1300만 화소 카메라, 3120mAh 배터리 등의 사양을 갖춘 일체형 플라스틱 케이스 스마트폰이다.

이날 레이첼 샤오미 최고경영자(CEO)와 후고 바라 부사장은 출시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바라 부사장은 “미4i는 인도 소비를 바탕으로 인도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며 “오는 30일 인도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5월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시장에 진출한 샤오미는 같은 해 인도 시장 점유율 4%를 기록해 삼성전자(22%), 마이크로맥스(18%) 등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강왕운이라는 사람이 있다. 한자로는 ‘姜旺運’일 것이다. 왕성한 운수라는 뜻이니 참 좋은데,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때 맨날 틀린다고 한다. 가와운, 가와문, 가왕문, 기와문 등 가지가지다. 며칠 전에는 강와문이라고 또 새로운 작명을 했기에 “강왕운씨죠?”라고 했더니 “이젠 내 이름도 까먹었나 봅니다. 큰일이네요. 강왕운”이라고 매우 슬퍼하며 정확한 이름을 써 보내왔다. 휴대폰 자판의 오묘한 장난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

대학교수인 내 친구는 “문자를 보니 망한 듯 반갑워”라는 답을 보내왔다. ‘망한 듯이’ ‘만난 듯’의 잘못된 건 바로 알았지만 어떻게 이런 오타를 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연습해 봐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그랬나?

이런 건 다 무슨 오타 사례이지만 말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대책이 없다. 최근 인터넷

에서 본 맞춤법 오류 사례에는 ‘환장적’이고 포복절도할 게 많았다. 우선 “나보고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재미있는 말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일과 절을 해야 하지만,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일해라 절해라 그러면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하고 싶겠어?

‘멘토로 살기 좋은 인물’이라는 무서운 말도 있었다. 이제는 멘토도 살아 먹는 세상인가 보다. 김수환 추기경이 “삶은 계란”이라고 농담을 했다던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말뭉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잘못된 경우는 이런 것들이다. 회계머니(회계모니), 댄집회의(댄지페이), 임신공격(인신공격), 끝이따분한 성격, 나물할 때 없는 맛머느리감, 예어진 시래기(실외기), 힘들면 시험시험 해, 수박갑탈가... ‘꽃샘추위를 잘

못 쓴 곱샘추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같다. ‘미모가 일치일장’ ‘마마 잃은 중전공’은 ‘일취월장’ ‘남아 일언중전금’이라는 말을 몰라서 저지른 무식의 소치다. “죄인은 오랏을 받아라!”는 성적 농담 같기도 한데, 미운 놈한테 딱 하나 더 주자는 건지 뭐지?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모아서 쓴 소설’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웃거리고 일부러 틀린 게 아니라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오른 글을 모아서 짜깁기한 연애소설이다.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월의 화사한 벚꽃과 함께 같은 임옥금이의 그애만 생각하면 왜간장이 났다. 그애는 김에김씨였다. 혼자

인 게 낳다며, 본비는 곳을 잃어하던 나... 사소한 오묘의 발단은 이랬다. 따르릉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너 과자번호가 뭐니?? 과자번호를 불러주자 알았다며

백만원이 입금되었다. 어의가 없다. 늦은 밤, 신뢰를 무릎쓰고 전화를 걸었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니?! 그애가 버럭 화를 냈다. 무슨 화개망친한 얘기야? 잠깐 과자번호 빌린 건데 백만원 다시 돌려줘. 그리고 다신 내 눈에 뛰지마라. 그제니 한 개다. 권투를 빈다...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다.”

다음은 이번 글의 결론. 이것도 비슷한 곳에서 퍼온 남의 글이다. “글을 쓸 때 맞춤법이 틀리지 않게 쓰는 여자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맞춤법 자주 틀리는 남자에게 정나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글을 쓸 때 맞춤법 많이 틀리게 쓰는 여자는 남친이 맞춤법 자주 틀리게 써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거슨 질리!” 맞는 말소 같다. 그런데 질리? 어떤 질리? 설마 베나야미노 질리?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올 들어 소비자가 물가가 연속 0%대에 머무르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 행진이다. 1999년 이후 16년 만의 초유현상이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경제가 장기 불황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 저변에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고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2010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경제성장방법론으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빠져 방향을 잃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로는 이 이론을 향후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기본 기조로 설정하고 갖가지 정책 대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가? 현 경제 상황에서 단순한 소득 주도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조건

낼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저변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부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꾸로 실업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준다.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세제상 규제를 가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적용 범위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다.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해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상장기업 중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다. 기업들의 고액 배당을 유도하는 배당 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의 대주주나 외국 자본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크다. 이 경우 기업들이 유보이익이 없어 투자를 못해 거꾸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대주주와 외국 자본에 혜택을 집중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갈시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두 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첫 단계로 우리 경제는 소득보다는 고용이 성장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경제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가 맞물려 증가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특히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일을 맡길 경우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를 과감하게 개혁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늘려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신성장동력 창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혁신이 없이는 어떤 소득정책도 무위로 끝난다. 또 재정팽창과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난다.

두 번째 단계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성장을 이끄는 힘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 임금비율은 100대 57이다.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비율은 100대 66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비율은 100대 68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비율은 100대 40으로 벌어진다. 이러한 임금구조하에서는 아무리 고용이 늘어도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의 연결고리 형성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를 개혁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없애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지불하는 과도한 임대료를 내리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도 막아야 한다.

하루 한 생각 4월 24일

융융설설(融融泄泄)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중국 춘추시대에 정(鄭) 무공(武公)이 죽은 뒤 장남 오생(甯生)이 즉위했다. 그가 장공(莊公)이다. 장공의 어머니 무강(武姜)은 낳을 때 고생이 컸던 오생을 미워하고 둘째 공숙단(共叔段)을 편애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공숙단이 왕이 되지 못하자 장공에게 졸라 나라에서 가장 큰 성을 주게 했다.

공숙단은 어머니의 총애를 업고 쿠데타를 기도했다. 장공도 알고 있었으나 참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공숙단이 도성을 공격하고 무강이 내용하기로 날짜를 정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들어오자 토벌했다. 패주한 공숙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공은 황천(黃泉)에 가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노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바로 후회했다. 영고숙(穎考叔)이라는 신하가 그 마음을 알고 “땅 밑에 큰 굴을 파면 샘물[泉水]이 나올 것이니 그제 바로 황천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공은 곧 굴을 파게 한 뒤 그 안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큰 굴 속에 기쁨이 넘치는구나”[大隧之中 其樂也融融]라고 노래했다. 무강도 “큰 굴 밖에 즐거움이 퍼지네”[大隧之外 其樂也泄泄]라고 화답해 모자의 정이 이어졌다. 융융설설(融融泄泄)이라는 성어의 유래다.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원년 조에 나온다.

성호 이익의 시 ‘이견대’(利見臺)에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옛 은혜와 새 기쁨이 편안하고 화락하네”[慈懷哺鳥共盡舊恩新惟方洩]라는 대목이 있다. 편안하고 화락하다는 예용(洩融)은 예예용용(洩洩融融) 또는 융융예예(融融洩洩)의 준말이다. 융융설설과 같다.

뜻은 같은데 왜 글자가 다를까. 훨씬 후대인 명나라 때 편찬된 ‘열국지’에 ‘춘추좌씨전’과 달리泄泄(설설) 대신洩洩(예예)로 쓰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洩는 설설, 파질 예, 두 가지로 발음된다.融融泄泄에 융융예예라고 음을 붙인 책도 있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봄 되니 도시가스요금 내리고 대중교통요금 올리고, 나원참~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3% 인하한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올리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상에는 “날 풀리니 도시가스요금 내리고 대중교통비 올리고... 죽이 착착 맞

는구나”, “가스요금 내리면 뭐하나. 겨울 지나갔다. 여름이다. 이 녀석들이”, “몰랐어요? 매년 그래요. 가스비는 봄에 내리고 가을에 올리고. 물론 올릴 때는 내릴 때보다 조금 더 올리는 센스”, “서울시가 먼저 대중교통요금 올리면 기다렸다는 듯 다른 지역도 줄줄이 올리겠죠?” 등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e뉴스

www.baekn.com

공백기 깨고 본격 활동, 이본

배극남닷컴은 최근 이본을 만났다. 이본은 25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보고 있다’에서 고정 MC를 맡는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11명의 스타가 ‘엄마군단’으로 뭉쳐, 출연을 의뢰한 엄마와 함께 자녀의 하루를 따라가며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본은 “자실 제 아킬레스건이 저희 엄마 이야기다.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눈물이 난다. 딱히 어떤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엄마만 단 어 자체가 그렇다”며 눈시울을 붉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본은 “빠르게 100세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엄마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쯤 프로그램 섭외를 받았다”고 출연을 결정한 계기를 밝혔다. 이본은 “공백기를 깨고 인사드려 반갑다. 솔직하고 멋진 자세로 임하겠다. 언짢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겉으로만이 아닌 진심을 다해서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 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당첨에 개제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투자자 중심 자산관리플랫폼 정착”

출범 1주년 맞은 펀드온라인코리아 차문현 대표

“불완전판매 1건도 없어…웹·모바일 맞춤형 육성”

“펀드슈퍼마켓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불완전 판매 없이 투자자 중심의 펀드 플랫폼을 구축시킨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온라인 금융 생태계 시대를 맞아 웹은 물론 모바일 상에서도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을 자리매김하는 데 올인하겠다.”

▶관련기사 22면

출범 1주년을 맞은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차문현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통합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년간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과거 펀드 시장이 공급자 중심이었던 데 반해, 펀드슈퍼마켓 출범과 함께 투자자들이 성향에 맞는 펀드를 비교·분석하는 투자 요인으로 거듭난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차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펀드를 투자 성향에 맞춰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선택의 권리를 확대해 불완전판매와

불공정판매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지난 1년간 한 건의 전산사고 없이 고객 친화적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펀드슈퍼마켓 출범으로 기존 판매사들도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를 촉진시킨 점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기존 오프라인 지점에선 제한된 상품 위주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한정됐다면, 펀드슈퍼마켓 출범 이후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 투자 문화 구축을 자랑거리로 꼽았다.

차 대표는 “많은 운용사들이 투자자와 만나는 채널로 펀드슈퍼마켓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한해 자체 채널이 없는 독립계, 외국계 및 중소형 운용사들이 크게 성장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펀드슈퍼마켓 2.0 서비스 및 모바일앱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lifer@

최근 새마을금고가 펀드슈퍼마켓 계좌 개설 가능한 곳으로 추가된 만큼 점차 가입 가능한 금융회사 수도 늘려갈 계획이다.

다만 이제 막 발걸음을 댄 펀드슈퍼마켓이 온 국민의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IFA(독립투자자문업자)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차 대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펀드 정보 제공을 위해 IFA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가시화된다면 고객 저변 확대와 펀드 슈퍼마켓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 대표는 “자문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IFA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소비자보호법 제도의 한국형 ISA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 종합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모바일 금융생태계에서 혁신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펀드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김경아 기자 kakim@

“힐러리 클린턴 보고 있다”

칼리 피오리나, 대선 출사표

〈前 HP CEO〉

“내달 공화당 경선에 나설 것”

대중 지지율은 2%로 낮아

칼리 피오리나(사진) 전 HP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통령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피오리나 전 CEO는 다음달 4월 2016년 대선 출마를 위해 공화당 경선에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하고, 기자간담회를 위한 콘퍼런스콜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온라인을 통해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간소한 방식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피오리나의 행보는 이미 공화당 주자로 나선 테드 크루즈(텍사스),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가 화려한 행사를 통해 출마를 선언한 것과 대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피오리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에 신경외과 출신인 벤 카슨, 아란소 주지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도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피오리나의 대선 출마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대결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피오리나는 대선 캠프를 클린턴 전 장관과 같은 뉴욕에 마련했다.

피오리나는 다음달 5일 정보기술(IT) 온라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개최하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 참석하고, 이어 케이블을 TV 인터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아직 피오리나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낮다. 미 방송 CNN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오리나는 2%의 지지율을 얻어 12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햄프셔의 케이블 방송 NHI가 조사한 설문에서도 2%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러나 WSJ는 피오리나가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인 만큼 현재의 지지율로 앞으로 상황을 예단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코스닥 CEO 평균스펙 살펴보니…

55세 서울대 이공계 출신

코스닥협회 상장법인 현황조사

코스닥협회는 2015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55.1세의 서울대 출신 이공계열 전공자가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코스닥협회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종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1064개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모델이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업력은 22.5년, 자본금은 113억6000만원, 임원수는 8.9명, 직원수는 240.7명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 CEO 총 128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를 통해 코스닥 CEO 연령은 50대(49.3%)가 가장 많았고 40대(21.3%), 60대(20.9%)가 뒤를 이었다. 여성 CEO는 16명으로 집계됐다.

CEO 학력은 대졸(66.3%), 석사(19.2%), 박사(14.4%), 고졸(2.9%)순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20.1%로 가장 많았다. 한양대(9.2%), 연세대(9.1%), 고려대(6.5%)가 뒤를 이었다. 계열은 이공계열(43.5%), 전공은 경영학(25.6%)이 가장 많았다.

정유현 기자 yhssoo@



2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이호철 한국거래소 부이사장과 할무트 그라프 STOXX CEO는 '지수 공동개발 등 인덱스 부문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거래소·유럽 스톡스 MOU

첨단 신종지수 등 공동개발

한국거래소는 전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럽 지역 대표 인덱스 사업자인 STOXX와 '지수 공동개발 등 인덱스 부문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이호철 한국거래소 부이사장과 할무트 그라프(Hartmut Graf) STOXX CEO가 양 기관을 대표해 체결했다.

거래소와 STOXX는 장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첨단 신종지수 공동개발, 상대지역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연내 상업계약 체결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기초지수에 강점을 보유한 STOXX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신종지수를 공동 개발하고 국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부이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투자자에게는 유럽투자,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한국증시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북미와 아시아에 이어 유럽지역으로 글로벌 사업을 다각화해 한국 자본 시장의 국제인지도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gamja@

사내 제안왕·명장제도 첫 도입…전국 분임조 대회 최다 대통령상

조환익 사장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취임이후 경영혁신 박차

6년만에 흑자전환 성공

7년만에 순익 1조 달성도



한 공로와 글로벌 품질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5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조 사장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내 제안왕 제도와 한전 품질명장제도 등을 최초로 도입했고, 정부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전국 품질분임조 대회'에서 단일 기업으로는 최다인 21개 품질 분임조가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또 전력기자재 품질 최우수등급 획득 10개 제작사에 감사패를 수여해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고 시공품질 우수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KEPCO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2년 12월 조 사장 취임 이후 품질경영 활동을 토대로 다각적 경영 혁신과 자구노력을 통해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2년 연속 흑자와 7년 만에 순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한전이 빛가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데 시점에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등 전력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전시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민정 기자 puri21@

구자경 LG 명예회장, 오늘 91세 생일

구자경(사진) LG 명예회장이 24일 91세 생일을 맞았다.

1925년 경남 진주에서 LG 창업자 연암 구인회 회장의 6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구 명예회장은 본래 교육자였다. 1945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구 명예회장은 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1950년 아버지의 지시로 라화학공업사(현 LG화학)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 이후 1970년 럭키그룹(현 LG그룹)의 제2대 총수로서 그룹을 책임졌다. 그는 25년간 LG그룹을 이끌면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확보, 경영혁신 활동, 해외진출 등을 펼쳐서 글로벌 기업 LG의 기반을 다졌다.

구 명예회장은 그룹을 책임지면서부터 인재양성에 주력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1974년에는



전안연암대학을,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84년에는 연암공업대학을 각각 설립했다. 지난해 개교 40주년과 30주년을 맞은 두 대학은 현재 전문 농업인과 우수기술인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구 명예회장은 1995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현재까지 LG연암문화재단과 LG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며 인재양성과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iy@

현대차 정몽구 재단 ‘나라사랑 장학금’

경찰·소방관 유자녀 450명에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은 순직·공상 경찰 및 소방관들의 자녀 등 450명에게 '나라사랑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정몽구재단은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빌딩에서 '2015년도 나라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영학 이사장과 경찰청, 국민안전처 관계자, 장학생 대표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정몽구재단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 사회공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교육 및 장학 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라사랑 장학금은 순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찰과 소방관 가정 자녀의 학업을 지원한다.

나라사랑 장학금은 2010년 천안함 승조원 유자녀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순직 및 사고피해 경찰관 자녀, 2013년 소방관 자녀로 대상이 확대돼 왔다. 올해까지 누적 장학생수는 1300여명에 달한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3일 서울 계동에 위치한 현대빌딩 3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나라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순직·공상 경찰 및 소방관 자녀 등 총 45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현대차 정몽구재단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방송정책국장 전영만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전 △정부합동 부패패결추진단 경제·민생팀장 최준우

◆농촌진흥청 ◇승진 △기술협력국장 황정환

◆새만금개발청 ◇3급 승진 △운영지원과장 박노익

부음

▲유종원(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종성(KT 서광주지사장)·종업(아모르 이그렘 학원 강사)씨 부친상, 양범준(유니버설뮤지컬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이숙자(전 한국물텍스 부장)·임순선(중앙아동병원)씨 시부상 = 23일, 광주 천치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62-670-0035

▲최현경(카타르 대사관 근무)·영진(연세드림비노기과 원장)씨 부친상, 양범준(유니버설뮤지컬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강정원(한대 유아교육과 교수)씨 시부상 =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2227-7580

▲박동현(ADB 선임 경제학자)·동준(Inflection Point 이사)·화영(Sheraton New

York 영업팀장)·신영(변역가)씨 모친상, 안명수(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씨 장모상 =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2227-7560

▲이도석(사업)·황석(사업)·종석(목사)·봉해(대흥기업 과장)씨 모친상, 이순호(조선일보 사회부 기자)씨 조모상 = 23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32-327-4444

▲김태영(호성 테크닉스 이사)씨 별세, 감명국(시사저널 정치팀장)씨 형님상, 김혜진(써머스에스티 차장)씨 오빠상, 주진호(아시아 IDT 차장)씨 처남상 = 22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857-0444

▲배용일(원버스 근무)·정미(에코연계 근무)씨 모친상, 채경옥(현대카드 근무)씨 시모상 =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84

▲김선규(세종TV 편집인)씨 부친상 = 23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42-259-1292

▲이병화(에스텍시스템 대표)·병준·병윤·선희씨 모친상, 김문환(국민은행 부장)씨 장모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2-3410-6917

▲유진동(경기일보 여주 주재기자)·순동(GPS 대표)·기동(ATM물류센터 근무)씨 모친상 = 23일, 여주고려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 031-886-4496

PGA 회원인 사람이 회원의
모

1988년故 구옥희부터 2015년 김효주까지...태극낭자 28년간 39명이 130승

17년 전, 199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서는 한국 골퍼 사이에 지워지지 않을 명자 연줄이 연출됐다. 박세리(38살)는 지금웅그룹의 '덴탈 샷이'다. 박세리는 당시 연정 হল트 끝에 LPGA투어 역대 최연소(20세) 91개월 17일 메이저 대회 우승자가 됐다. 바로 이 우승이 한국 골프 중흥의 시발점이었다.

은 국민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긴 이 장편은 TV 속 국가 영웅으로 소개될 만큼 세대를 초월한 명작편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대가 무려 여섯에 걸친 걸프 강국이 됐다. 당시 TV를 통해 배워라!의 모습을 지켜본 어린 꼬마들은 LPG다!어를 호령하는 톱스기로 성장했다.

박연비(27·KB금융그룹, 신지혜(27, 최나연(28·SK텔레콤), 김민정(27·한화), 서우진(28·하나금융그룹) 등이 그 주 인공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경제형(L2·미래) 루아에 따라, 한국 어프로그래머 신화를 이야기고 있다.

결국 17년 전 박연비의 위대한 도전은 잡들이 있던 한국인의 몸도 DNA를 깨우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한국인의 DNA는 첫 우웅은 박세리보다 10년 앞선 1988년에 나 LPGA(주식) 국유화(2003년 7월 타게는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둔 그 스타디움과 레지스ٹر 클럽에서) 우웅하며 한국인 첫 LPGA투어 우승자가 됐다.

17년전 가슴 뭉클하게 한 박제리 '맨발샷'
한국 콜프 DNA 깨우며 중흥기 열어
김미현·박지은·한희원 등 릴레이 우승

박인비·최나연·김효주...올 시즌 역대 최강

이후 JLPGA투어에서 활약하던 고우순(61)은 1994년과 1995년 일본에서 열린 JPGA투어 도레이캐빈컵에서 연속 우승했지만 역시 스폰서 문제로 미국 진출을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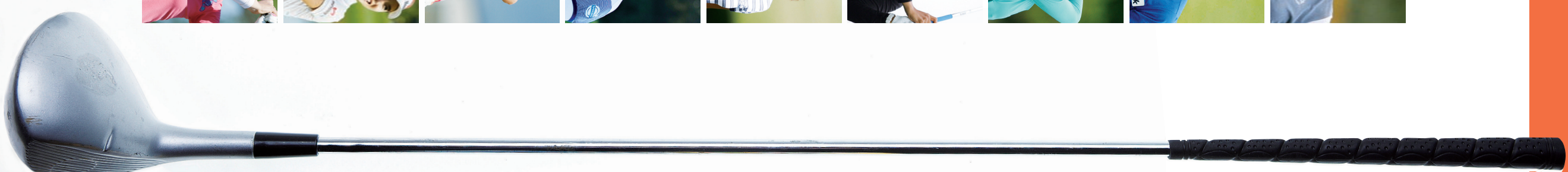
그리고 '콜로천제' 박세리가 나타났다. 박세리가 LPGA 투어에 신인으로 데뷔한 1998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박세리는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데뷔 첫째 메이저 대회 2승 포함 4승을 수확, 국민적 한(恨)과 응어리를 씻어냈다.

이듬해인 1999년에는 김미현(38·은혜)이 스타아트페릴 클러스터와 뱃시리 클러스터에서 우승하며 박세리와 같은 기록을 작성했고, 2010년 이복은 박지은(36)·한희원(36)·이별(37)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다. 이듬해(37) 장영숙(이상 은혜)이 우승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LPGA 투어에 한국인 1세대 대표 주자로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 전성기를 이끌었다.

2008년엔 박근혜와 신지애를 시작으로 '제리키즈'와 '세피카'라는 단편을 공개하였다. 박근혜를 제외한 PCA와 세피카의 출연은 모두 우의철회원인 '제리키즈'와 '민들레'이다. 제리키즈는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다. 1988년 고(故) 구국회의 첫 우승부터 지난 1991년 간세영의 롯데 챔피언스 우승까지 28년된 33명의 선수와 130여회의교포 4명 (신지애)을 수주하였다며 명과 은물의 간증도 드러내며 함께 엮었다.

바빠버리는 지난 17년간 25종(메이저화 5종)을 했을
아마 이번 최종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을, 박만배는 13종(메
이저 대외) 51곡에 115명에게 다녔다고 했다. 김민정씨 최
나연(88.8K 텔레콤은 각각 8성을 보였다. 역대 최강 캠퍼스로
구분된 물 시즌은 9개 대회 중 6개 대회에서 우승(런디)한
고 포환(7). JPGA가 도전 28년 만에 가장 화려한 꽃을
오장민(7) gozmin@naver.com

오상민 기자 goalf5@

박세리외 박민애 비교표	
박세리	박민애
1977년 9월 28일	1989년 7월 12일
대전	충청
170cm	183cm
25	몸상무늬
5	메이크업무늬
6년전선	연장수비
· 1998년 신인왕 · 2003년 메이트로프기 · 2007년 연예계의 전성	· 2012년 오승환 메이트로프기 · 2013년 오승환, 율예하 선수 다수왕 · 2014년 다수왕
스타게인고 멘탈수비	피프고 멘탈수비
쿨러비 출연	커리어 그랜드출연
출판비 출연	목표

US여자오픈에서 첫승.강철 멘탈 등 담은 끝
바인비, 박세리 넘는 첫 '세리키즈' 될지 주목

한국 선수들의 미국·아프리카포폴스(LPGA)투어(130타 이하)와 코리안 투어(144승)의 신화 무대는 박세리(38)와 김은영(40)이 최근 두 선수 사이를 잇는 양대 산맥이 존재했다. 특히 김은영은 두 선수 사이의 미묘한 경쟁에서 앞섰다. 박세리는 LPGA투어 통산 25승으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승리를 올렸지만, 제리키와 박세리는 13승으로 박세리의 기록을 향해 한걸음closer 다가갔다. 두 선수의 우승 횟수만 보더라도 전체 LPGA승의 29.2%를 차지한다.

특히 메이저 대회에 강해서 각각 5승씩을 기록 중인 지난 1998년 US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첫 우승컵을 든 은 박세리는 이후에도 브리시티 여자오픈(2001)과 LPGA 챔피언십(1998-2002-2006)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공표권에도 박인비의 첫 메타지 대해 우승은 박태환의 USFCA로온 우승(1988년)10대 독일 2000년 USFCA로온 우승이 서 나왔다. 2013년에는 크라프트 나바스프와 첼피자르와 유우첸고 지니하에는 웨그만스 USFCA 첼피자르에서 다사그랜스 USFCA 첼피자르 그리고 USFCA로온에서 있다박우승권을 들어올리다 메타지 대해 통간승을 완성했다.

KVA 인드퍼레이션구 나바스프와 첼피자르였다. 여배우 한 피안일에서 우승하면 그리고 그랜드첼페를 달성한다.또한 박인비는 빅토리 여저지르도 나바스프와 첼피자르에보장해서 오를 경우 두번이 그랜드첼페를 이룩하게 된다.

두 선수의 장점은 돌바위를 안상케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다. 특히 바세리는 돌산 6번의 안정 승부를 전부 승리하며 장식할 만큼 기찰 같은 팬탈 테크닉을 지녔다. 박인비만큼 많은 바위를 잡기보다는 어려운 홀을 파로 막는 능력과 탁월한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잡목의 암살자다.

두 선수의 선전은 국내 골프산업 흥용으로 이어졌다. 전점도 넓었다. 바버킨은 25층을 일구고, 동안 수많은 건물을 드림로를 연출했다. 특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5천만 달러로 실의에 빠져 있던 국민을 골프로 나오게 한 바. 이후 수많은 '세라믹스' 탄생했는데 그 대표적 산물이 바버킨이다.

박인비는 박세리의 활약을 보며 골프선수로서의 꿈을 키웠지만 지금은 박세리의 대거록을 하나도 하물어가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삼강왕에 올랐고, 한국여자수는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올해의 선수상(2013년)도 수상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명예의 전당까지 입성하면 완벽하게 박세리를 뛰어넘는 첫 번째 '제1키즈'가 탄생할까.

오상민 기자 golf500@naver.com

멘탈·노력·기량... ‘코리안 돌풍’ 이유 있었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선 한국 선수들의 유례없는 고공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9개 대회에서 6승(리디아 고 1승 제외)으로 승률 67%다. 특히 19일(한국 시간) 끝난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연장 승부를 펼친 김세영(22·미래에셋)과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비롯해 상위 5명이 전부 한국 선수였다. 경기를 치를수록 한국 선수들의 기세는 더욱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각 부문 타이틀 경쟁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독식하고 있다. 롯데 챔피언십에서 거짓말처럼 거처 같은 우승을 일궈낸 김세영은 상금순위(69만9735달러·약 7억5000만원)와 올해의 선수(85), 신인왕 포인트(626)에서 각각 1위에 올랐고, 양자령(20)은 평균 퍼트(27.17) 1위에 자리했다. 해외교포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그 세력은 더욱 막강하다. CME 글로브 포인트(1505), 톱10 퍼시니슬(86%), 그린 적종률(81.5%)에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캘러웨이골프)가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스코어에선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가 1위에 올라 있지만 김효주와 리디아 고, 박인비가 각각 2·3·4위로 추격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의 유례없는 선전에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박소영 여자골프 국가대표 코치는 자신감이 가장 큰 무기라고 조언했다. 박소영 코치는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예전엔 LPGA 진출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명예의 전당이 목표일 만큼 포부도 원대해졌다”고 말했다.

임경빈 JTBC골프 해설위원도 과거와 다른 신인들의 자신감과 두드러진 배경에 주목했다. 임 해설위원은 “과거엔 신인선수들이 주눅 드는 모습을 자주 발견했지만 김효주나 김세영에겐 그런 게 없다”며 “이젠 골프가 상향 평준화돼 특정 한두 명이 독주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지금 한국

상금·올해 선수·신인왕 포인트 등 올 시즌 주요 타이틀 상위권 독식

예전엔 LPGA 진출 꿈이었지만 지금은 명예의 전당 입성 목표로

배짱 두둑해지고 연습 더 열심히

김효주·김세영 ‘슈퍼루키’도 한몫

엔 특출한 선수가 유난히 많다”고 설명했다.

조현 골프 인스트럭터는 연습량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조현 인스트럭터는 “같은 연습량으로 서양 선수들을 압도할 수는 없다.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 시간을 연습에 매진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연습량만 놓고 보면 한국 선수들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는 대학의 운동 특기생에 대한 느슨한 학점제도와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다. 국내 다수의 프로골퍼는 학업과 골퍼를 병행한다. 하지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주 대

회를 치러야 하는 프로골퍼가 대학 수업에 출석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특기생에 대해 리포트만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레저스포츠학부 교수는 “외국 선수들은 학업과 골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는 4년간 운동에 전념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 선수 대부분은 학점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 자연스럽게 연습량이 늘 수밖에 없다. 그 연습량이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강 기량도 배제할 수 없다. 신지에(27)가 지난해부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로 무대를 옮겼지만 박인비, 최나연(28·SK텔레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등 기존 선수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LPGA투어에 뛰어난 신예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미림(25·NH투자증권)은 지난해 2승을 올리고도 리디아 고에게 신인왕을 빼앗겼고, 김효주와 김세영, 장하나(23·비씨카드), 백규정(20·CJ오쇼핑)은 선배 선수들을 능가하는 기량으로 신인왕 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이 나 PGA 마스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LPGA투어에 입성했다. 올해 6승 중 3승은 신인들이 올렸을 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입증하고 있다”며 “어린 후배들의 선전이 모든 선수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다. 어린 ‘슈퍼루키’의 활약이 이어지는 한 한국 선수들의 돌풍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민 기자 golf5@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22·미래에셋)이 지난 1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오아후 코올리나 골프클럽에서 우승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본 'LPGA투어 한국(계) 선수 이유 있는 독주'

임경빈 JTBC골프 해설위원	박소영 여자골프 국가대표 코치	조현 골프 인스트럭터	제이 나 PGA 마스터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
- 신인들의 자신감과 두드러진 배경 - 역대 최강 루키들의 합류 - 그로 인한 한국 선수들의 자극제	- 선배들의 연이은 승진보로 인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 외국 선수들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연습량	- 서양 선수들을 압도하는 연습량 - 부모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 동료 선수들의 선전으로 인한 자극제	- 어린 신예들의 선전으로 인한 자극제 - 역대 최강 루키들의 데뷔 - 매년 새로운 선수들의 등장	- 운동 선수들에 대한 대학의 학점 특혜 - 많은 연습량으로 인한 자신감 - 부모들의 헌신적 뒷바라지

LPGA ‘전설’이 된 그녀들

박세리, 아시아인 최초 명예의 전당 입성
박인비, 63년 만의 메이저 3연승 대기록
리디아 고, 최연소 우승·올 시즌 랭킹 1위

LPGA투어 한국(계) 선수 연도별 우승기록

연도	한국 (교포)	메이저 대회
1988	1	
1994	1	
1995	1	
1998	4(1)	2
1999	6	
2000	2	
2001	7	1
2002	9	1
2003	7	
2004	4(1)	1
2005	7(1)	2
2006	11	1
2007	4	
2008	9	2
2009	11(1)	1
2010	9(1)	
2011	3	1
2012	8(1)	3
2013	10(1)	3
2014	10(6)	2(1)
2015	6(1)	
(현재)		
합계	130(14)	20(1)

LPGA투어 주요 타이틀 '톱5'

- 상금
- 1위 김세영
 - 2위 스테이시 루이스
 - 3위 리디아 고
 - 4위 박인비
 - 5위 브리타니 린시킴

평균타수

- 1위 스테이시 루이스
- 2위 김효주
- 3위 리디아 고
- 4위 박인비
- 5위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CME글로브

- 1위 리디아 고
- 2위 김세영
- 3위 스테이시 루이스
- 4위 박인비
- 5위 양희형

올해의 선수

- 1위 김세영
- 2위 리디아 고
- 3위 브리타니 린시킴
- 4위 스테이시 루이스
- 5위 박인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한국 선수들의 위대한 역사는 기록이 입증하고 있다. 한국 여자 프로골퍼들은 고(故) 구국희(2013년 7월 타계)가 LPGA투어에서 첫 우승한 1988년 이후 28년간의 도전을 통해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한국 선수단의 만인비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는 2007년 최연소(30세 1개월 10일)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 LPGA투어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

신지에(27)는 2010년 5월 3일(이하 한국시간) 아시아인 첫 세계랭킹 1위에 올라 다음해 2월 13일까지 25주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현재 이 부문 5위에 올라 있다.

박인비 등 한국 국적 7명 '10승 합작'

리디아 고·미셸 위 교포 선수도 6승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들은 총 10승(메이저 대회 2승 포함)을 수확했다. 32개 대회가 열린 것을 감안하면 우승 확률은 31%였다.

특히 박인비(27·KB금융그룹·3승), 이미림(25·NH투자증권·2승) 등이 다승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일부 스타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고 7명의 선수가 고른 성적으로 완성한 결실이라는

2008년 US여자오픈 우승 후 혹독한 슬럼프를 경험한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5년 만에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63년 만에 메이저 대회 3연승 대기록을 작성했다. 박인비는 또 올해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나흘 내내 단 하나의 보기도 범하지 않고 72홀 노보기 우승을 일궈냈다. 72홀 노보기 우승은 LPGA투어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차세대 골퍼여제’ 김효주(20·롯데)는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 첫날 역대 LPGA투어 메이저 대회 최저타(61타)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김효주는 이 우승으로 올 시즌 LPGA투어 시드권을 따냈다.

요즘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캘러웨이골프)가 신기록

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디아 고는 아마추어 신분이던 지난 2012년 캐나다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LPGA투어 최연소(15세 4개월 2일) 우승을 달성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이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올라 아마추어 첫 LPGA투어 2승이자 동일 대회 2연패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리디아 고는 또 같은 해 마라톤 클래식 우승으로 최연소(17세 2개월 26일) 상금 100만 달러(약 10억원)를 돌파했고, 2014년에는 최연소 신인왕, 2015년 2월 1일에는 최연소(19세 9개월 7일) 세계랭킹 1위를 탈환했다.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첫날에는 29라운드 연속 언더파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다시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LPGA투어 활약 한국(계) 선수 주요 기록들

박세리 2007년 최연소(30세 1개월 10일) · 동양 첫 명예의 전당 신지에 2010년 아시아인 첫 세계랭킹 1위 - 5월 3일 박인비 2013년 63년 만에 메이저 대회 3연승 - US여자오픈 2015년 LPGA투어 사상 첫 72홀 노보기 우승 - HSBC위민스 김효주 2014년 역대 메이저 대회 최저(61타) - 에비앙챔피언십	리디아 고 2012년 LPGA투어 최연소(15세 4개월 2일) 우승 - 캐나다여자오픈 2013년 아마추어 첫 LPGA투어 2승 - 캐나다여자오픈 최연소(17세 2개월 26일) 상금 100만 달러 - 마라톤클래식 2014년 최연소 신인왕 2015년 최연소(19세 9개월 7일) 세계랭킹 1위, 29라운드 연속 언더파 - ANA인스퍼레이션
---	--

한국(계) 선수 LPGA투어 역대 타이틀 획득 현황

상금왕	신지에(2009), 최나연(2010), 박인비(2012 - 2013)
메이저트로피	박세리(2003), 박지은(2004), 최나연(2010), 박인비(2012)
올해의 선수	박인비(2013)
다승왕	신지에(2009), 박인비(2013 - 2014), 리디아 고(2014)
신인왕	박세리(1998), 김미현(1999), 한화원(2001), 안시현(2004), 이선화(2006), 안젤라 박(2007), 신지에(2009), 서희경(2011), 유소연(2012), 리디아 고(2014)

올시즌 LPGA '태극 돌풍' 어디까지

승률 67%

이 기세면 22승도 'OK'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의 사상 유례없는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19일(한국시간) 끝난 시즌 9번째 대회 롯데 챔피언십까지 6명의 한국인 챔피언(리디아 고 1승 제외)이 탄생, 67%의 믿기 힘든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은 개막전 코츠골프 챔피언십(최나연)을 시작으로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김세영), 혼다 LPGA 타이랜드(양희영), HSBC 위민스 챔피언십(박인비), JTBC 파운더스컵(김효주), 롯데 챔피언십(김세영)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비록 KIA 클래식(이미림 2위)과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김세영 공동 4위)에서는 우승을 놓쳤지만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며 코리아 돌풍을 이어갔다. 그리고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상위 5명이 전부 한국 선수였다.

시즌 초반 한국 선수들의 연승 행진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 국적 선수의 첫 우승은 6월 매뉴라이프 LPGA 클래식(박인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올

개막후 9개 대회 6명 V샷 '이례적'

한시즌 11승 최다 기록 켜지 주목

시즌 한국 선수들의 한 시즌 최다승(2006·2009년 11승) 경신이 희망적인 이유다. 이대로(승률 67% 기준)라면 22승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희망적인 요소도 많다. 올해 우승을 맞본 6명 외에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이미림(25·NH투자증권), 장하나(23·비씨카드), 백규정(20·CJ오쇼핑), 이일희(27), 최운정(25), 이미향(22·이상 볼빅), 허미정(26·하나금융그룹), 신지은(23·한화), 김인경(27·한화) 등 아직 우승은 없지만 언제든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대주가 많다.

시즌 초반 일찌감치 첫 승을 경험한 박인비, 김효주, 김세영 등도 최소 1~2승 이상은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박인비는 2013년 6승에 이어 지난해 3승을 달성했고, 올 시즌도 절정의 퍼트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미국 본토 및 인근 국가에서 펼쳐지는 16개 대회가 관건이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레인우드 클래식(중국), 사암다비 LPGA(말레이시아), KEB-하나은행 챔피언십(한국), 블루베이 LPGA(중국), 푸본 LPGA(타이완), 재팬 클래식(일본) 등 6개 대회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열린다.

오상민 기자 golf5@

박세리 年 20억...아직 '넘사벽'

후원기업을 통해 본 태극낭자 랭킹

우승, 또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32개 대회 중 10개 대회에서 우승 축포를 터트렸다. 이들의 우승 소식은 선수 가족은 물론 TV를 통해 우승 소식을 접한 국내 골프팬들에게 무한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이들의 우승 장면을 남다른 감정으로 지켜본

신선도 있다. 후원 기업들이다.



LPGA투어 한국(계) 선수 후원 주요 기업들

LOTTE | 롯데 | 김효주

MIRAE ASSET | 미래에셋 | 김세영

Volvik | 볼빅 | 이미나, 이미향, 이일희, 최운정

비씨카드 | 장하나

하나금융그룹 | 박세리, 박희영, 유소연, 이민지, 허미정

HITEJINRO | 하이트진로 | 서희경

한화 | 강세지, 김인경, 신지은, 오지영, 지은희

호반건설 | 박주영

CJ오쇼핑 | 백규정

JDX | JDX | 박민서, 유선영

KB금융그룹 | 박인비

NH투자증권 | 이미림

SK telecom | SK텔레콤 | 최나연

현재 LPGA투어 한국 선수들을 메인으로 후원하는 기업은 롯데, 미래에셋, 볼빅, 비씨카드, 하나금융그룹, 하이트진로, 한화, 호반건설, CJ오쇼핑, JDX, KB금융그룹, NH투자증권, SK텔레콤 등 13개다.

선수들은 특정 기업과 메인 스폰서로 계약하면 기업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유니폼, 또는 캐디백을 들고 경기에 출전한다. 그것을 대가로 계약금과 인센티브, 전지훈련비 등 금전적 혜택을 받는다. 금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LPGA투어 선수들을 향한 기업 후원이 처음부터 활발했던 건 아니다. 기업들이 여자프로골퍼 마케팅에 눈을 뜬 건 1996년부터다. 삼성은 당시 유망주였던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와 연간 3억원에 10년간 장기 계약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박세리의 대항마로 동갑내기 라이벌 이주은(은퇴)과 연간 5억원에 3년간 계약하며 본격적 골프마케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차의 화비는 극명했다. 박세리는 LPGA투어 진출 첫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4승을 달성하며 신인왕을 차지한 반면 이주은은 부상에 시달리다 번번한 성적 없이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이후 박세리는 삼성과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02년 말 CJ로 이적했다. 연간 20억원에 5년 계약으로 국내 남녀 프로골퍼를 통틀어 사상 최고가 계약금이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불멸의 금액으로 남아 있다.

CJ와 5년 계약 역대최고...미래에셋, 신지에 15억 롯데, 20살 루키 김효주와 13억씩 5년 '과격대우' 삼성·하나금융 등 13개 기업 '선수들의 동반자'로

KT(비씨카드)는 김미현(38·은퇴)의 LPGA투어 데뷔부터 은퇴까지 함께 했다. 1999년 LPGA투어 진출부터 2012년 은퇴까지 무려 14년간을 후원, 통산 8승의 기쁨을 나눴다. 지금은 지난해 웰리파인 토너먼트를 통해 올해 LPGA투어에 입성한 장하나(23)를 후원하고 있다.

신세계는 단 한 명의 선수를 위해 후원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인공은 김영(35)이다. 1999년 연간 1억2000만원에 3년간 계약했고, 2003년에는 연간 5억원에 3년간 재계약하는 등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카드였다. 그러나 김영의 LPGA투어 우승은 2007년 코닝클래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제일모직은 2001년 강수연(39)과 7억5000만원에 3년간 계약했고, 2003년과 2007년에도 각각 연장 계약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강수연은 2005년 세이프웨이 클래식 우승으로 보답했다.

미래에셋은 2009년 LPGA투어에 진출한 '세리키즈' 신지애(27)와 연간 15억원(매년 10억원·인센티브 최대 5억원)에 5년 계약을 화제를 모았다. 이에 신지애는 데뷔 첫 해 신인왕과 상금왕, 디스왕을 차지하는 등 LPGA투어를 떠난 2013년까지 통산 11회(메이저 대회 2승)를 장식했다.

KB금융그룹은 2013년 스폰서 없이 투어를 전전하던 박인비(27)와 4년 계약, LPGA투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롯데는 '슈퍼루키' 김효주(20)를 잡았다. 지난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와 5년 동안 매년 13억원씩 총 6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올 시즌 김효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골퍼 이미향 인터뷰



국산 골프볼이 싸구려?

이제 명품 대접받아야요

잘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올라가 뿌듯

“이젠 국산도 명품 취급받아요.” 지난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미즈노 클래식에서 우승한 이미향(22·볼빅)의 말이다. 요즘 LPGA투어에선 한국 선수들의 유례없는 선전에 국산 골프용품도 명품 취급을 받는단다.

그의 말에는 유난히 자신감이 실렸다. 그럴 만도 하다. 이미향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산 골프용품 제조업체 볼빅으로부터 물품 후원을 받았다. LPGA투어 진출 때는 메인 스폰서로 계약해 지금까지 왔다.

이미향은 2012년 볼빅 모자를 쓰고 시메트라투어(2부) 상금왕에 올랐고, 지난해는 미즈노 클래식에서 첫 우승컵을 안았다. “제가 발전하는 만큼 국산 브랜드 이미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죠. 내친김에 명예의 전당까지 함께 가고 싶어요(웃음).”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한국 선수 활약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골프가 개인 경기이다 보니 ‘어느 나라 선수가 몇 번 우승했나’보다 ‘어떤 선수가 잘 치냐’가 관심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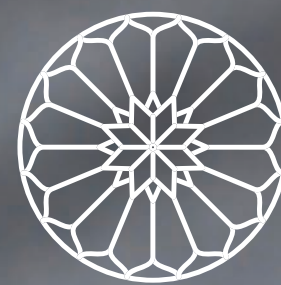
이미향은 이어 “아짜됐든 골퍼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만 기술만 좋다고 우승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난해 1승을 했기 때문에 올핸 더 잘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섰는데 그럴수록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길 생각입니다.”

외국 선수들에 대한 응원도 부탁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신 한국 팬들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국 선수의 우승도 좋지만 골프 그 자체를 즐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외국 팬들도 많으니까요.”

오상민 기자 golf5@



CJ O SHOPPING

odense
Atelier

북유럽 스타일 테이블웨어
오덴세 아틀리에

도자기 특유의 질감을 살린 디자인과 빈티지하면서도 오묘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어떤 자리든, 어떤 음식이든, 일상의 평범한 식탁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오덴세 아틀리에

CJmall 오덴세 아틀리에



4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CJ오쇼핑 방송!

문의 : CJ오쇼핑 (080-000-8000 / www.CJmall.com)

90년대 전성기 ‘한번 더’



90년대 ‘대세돌은 나’

가요계 신구 맞대결

지난달 엑소·미쓰에이 동시컴백
박진영 ‘어머님이...’ 단숨에 1위
EXID ‘아예’로 ‘위아래’ 인기 이어
힙합듀오 지누션, 11년만에 호흡

4월 대중음악 시장은 신구 가수들의 컴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박진영과 지누션 등 19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과 미쓰에이, 엑소, EXID 등 신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음반, 음원 시장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엑소와 미쓰에이가 동시에 컴백하면서 음원시장이 들쭉였다. 엑소는 정규2집 앨범 ‘엑소더스(EXODUS)’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엑소의 이번 타이틀 곡 ‘콜미 베이비(CALL ME BABY)’는 중독성 강한 후크와 멜로디, 재치 있는 가사가 조화를 이룬 곡으로 엑소만의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가 매력적이다. 특히 이번 앨범은 멤버 크리스와 루한이 탈퇴한 뒤 10명의 멤버로 활동하는 것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쓰에이도 1년 5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 ‘컬러스(Colors)’를 발표했다. 미쓰에이의 타이틀 곡 ‘다른 남자 말고 너’는 대중적인 힙합과 트래크 리듬이 인상적인 곡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랑 방식을 대변하는 곡이다. 미쓰에이가 가진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와 가사로 꾸며진 이 곡은 씨스타의 ‘터치 마이 보디’를 프로듀싱한 블랙아이드 필승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당초 엑소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미쓰에이가 전혀 밀리지 않았다.

미쓰에이의 1위를 밀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이었다. 박진영은 12월 1년 7개월 만에 발표한 새 앨범 ‘24/34’의 타이틀곡 ‘어머님이 누구니’로 음원차트를 강타했다. 박진영의 신곡 ‘어머님이 누구니’는 허리 24인치, 힙 34인치인 여자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곡으로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일렉트로닉 소울이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박진영의 컴백 다음날인 13일 ‘위 아래’로 역주행 열풍을 일으킨 EXID가 두 번째 미니앨범 ‘아예(Ah Yeah)’를 발매하며 박진영과 미쓰에이를 바짝 추격했다. EXID의 신곡 ‘아예’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 강렬한 비트, 다리를 이용한 포인트 안무 등 묘하게 ‘위 아래’를 연상하게 만든다. 적극적이지 못한 남자에게 반응하는 여자의 모습을 ‘위 아래’ 풍의 평기한 리듬으로 나타난 ‘아예’는 ‘위 아래’의 인기 요소를 강화시킨 곡으로 볼 수 있다.

15일에는 2004년 마지막 앨범 이후 11년 만에 힙합 듀오 지누션이 컴백했다. 지누션은 1월 ‘무한도전-토토가’ 특집에서 엄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녹음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이후 지누션은 YG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최단기간인 2달 만에 신곡 ‘한번 더 말해줘’를 공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누션의 신곡 ‘한번 더 말해줘’는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공동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1990년대 감성에 최신 사운드가 입혀진 뉴디스코 장르다. 특히 ‘K팝스타’ 출신 장한나가 피쳐링을 맡아 주목받았다.

오연진 기자 yerin2837@

‘식사를 합시다2’ 먹방연기 배우 서현진

“프로필 몸 무게요? 바뀐지 한참됐죠”

드라마 사극 단아한 이미지 탈피
방정맞은 ‘수지’ 실제 모습과 비주얼



“이렇게 캐릭터를 예뻐한 적은 처음이에요.”
tvN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2’에서 ‘먹방 연기’로 반전 매력을 피하고 있는 탤런트 서현진(30·사진)이다. 서현진은 극중 맛집 블로거 구대영(윤두준)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백수지로 분하고 있다. 서현진은 이번 역할을 통해 털털한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이나 스태프의 반응이 제일 뜨거워요. 칼국수 먹방이 나가면, 친구들이 점심에 칼국수를 먹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런 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앞서 MBC 드라마 ‘제왕의 딸, 수비향’, tvN ‘삼총사’ 등 사극 장르에서 주연을 맡아 단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이미지를 구축해 온 서현진은 이번 ‘식사를 합시다2’를 통해 신선한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현대극 참여는 처음이에요. 또 밝은 극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답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가운데 수지가 가장 저와 닮았지요. 제 본연의 모습과 가깝다 보니 자꾸 방정맞아 지더라고요. 수다스러워지고 혼잣말도 늘어났어요. 스스로 점점 더 밝아지는 걸 느낍니다. 촬영장 가는 게 설레요.”

원래 서현진은 2000년대 초반 걸그룹 밀크의 멤버

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지난 제작발표회에서 서현진은 정아한 음색을 드러내며 ‘식사를 합시다2’ OST 한 소절을 선보여 현장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서현진은 직접 참여한 삼입곡 ‘업앤다운(UP&DOWN)’의 발매를 직접 홍보해 특유의 발랄한 분위기를 내비쳤다.

연기자로 전향한 서현진은 가냘픈 외모가 주는 맑은 이미지를 점차 벗어던지고 있다. 이번 캐릭터에 몰입하느라 “방정맞아지고 수다스러워졌다”는 서현진은 프로필상 몸무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바뀐지 한참 됐다. 부끄러워 말아 달라. 저는 괜찮다”고 의연하게 대답했다. 주연급 연기자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해 연기 호평을 얻고 있는 서현진의 행보가 눈길을 모은다.

“제가 했던 작품은 항상 비극적 코드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욕심이 난답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19음악, 내 자랑 아닐까요”

‘24/34’ 앨범 낸 박진영

‘넌 허리가 뗏이니? 힘은?...’ 가사
협오반응보다 “박진영 답다던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음악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

박진영(사진)은 지난 20일 진행된 ‘24/34’ 앨범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음악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즐기는 음악을 하고 싶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음악을 하게 되면 난 전력을 짜고, 다른 가수들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싶지 않다. 성공은 중요하지만 과정 없는 성공, 의미 없는 성공은 싫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영은 환갑 때 최고의 춤과 노래를 보여주겠다는 희망을 담은 각오로 드러냈다. 그는 “옛날에 나 자신과 60세 때 최고의 춤과 노래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더불어 의학 공부도 했다. 수년간 노화에 대해 연구했다. 노화를 더디게 하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부했고, 그대로 적용하니까 예전보다 건강해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박진영은 ‘아한 음악’만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음악도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음악도 한다. 예를 들어 ‘19금’ 음악은 다른 사람이 못하지만 나는 잘한다”며 “아한 음악을 한다고 해서 퇴폐적이거나 그저 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건강함이 묻어나는 아한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진영은 음악을 만들 때 솔직해진다 고 했다. “‘24/34’ 앨범을 만들 때는 아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아한 가사가 나올 때는 아한 생각이 들 때이고, 밝고 경쾌한 가사가 나올 때는 그 당시 밝은 생각을 많이 했을 때다. 생각한 대로 음악이 나온다. ‘24/34’ 앨범이 나올 때 직원을 상대로 모니터해 봤더니 모두 웃더라. 가사가 아한 까도 생각했는데, 모두 혐오스럽다는 반응보다는 ‘박진영답네’라고 말해줬다.”

박진영은 오는 8월 앨범 발매를 목표로 작업해 왔다. 하지만 SBS ‘일요일이 좋다-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4’ 제작진으로부터 특별 무대를 요청받아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누구니’를 발매하게 됐다. ‘어머님이 누구니’는 제사가 피쳐링에 참여했으며 여성의 외모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BBC x ONT x 헬스메디tv

www.hyundaimedia.com



가족 행복 만족



가족의 달 '황금연휴' 맞아 전국 봄나들이 코스 추천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충북 단양 익스트림 스포츠
울산 시티투어·낙농체험, 경기 연천 승마·요리교실 인기

따스한 봄 햇살이 나들이 본능을 깨웠다.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선 몸살이 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다. 자연이 마술을 부린 듯 며칠 사이 온 세상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특히 5월은 봄나들이의 클라이맥스다. 근로자의 날(5월 1일)부터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등 휴일도 행사도 많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온가족이 나들이에 나서기에 이만큼 좋은 시기도 없다. 하지만 나들이 본능을 가로막는 게 있다. 가난한 마음이다. 떠나고 싶어도 이것저것 걱정스러운 게 참 많다. 나들이라고 별거 있을까. 알고 보면 온 가족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코스도 많다. 일명 '알뜰여행코스'다. 대표적인 곳이 전남 곡성·구례와 경남 하동이다. 섬진강을 따라가는 가족 체험여행지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2015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과 야생차의 그윽한 향이 살아 있는 매암차문화박물관, 약양들판을 바라보며 자리한 드라마 '토지'의 최참판댁 세트장을 둘러보는 1박2일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역사와 창고, 증기기관차, 폐선 철로 등도 이색 볼거리다. 마을 안을 도는 레일바이크와 장미공원 산책로, 다양한 체험공간도 흥미롭다. 특히 기차마을을 출발해 가정역까지 가는 증기기관차는 추억을 떠올리며 섬진강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어 인기다. 침곡역에서 출발해 가정역까지 달리는 레일바이크도 멋진 시간을 선사한다.

불가의 존엄이 감싸는 천년 고찰 화엄사도 인기 코스다. 지리산 자락에 기댄 화엄사는 깊은 계곡을 따라 경내로 들어서면 존엄한 불가의 세계를 보여주는

보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각황전(국보 제67호),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사자사 삼층석탑(국보 제35호) 등 민족 영산의 기운이 넘쳐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웅기 만들기과 낙농 체험이 제격이다. 울산과 울주군에 가면 울산시티투어가 있는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울산의 구석구석을 색다른 테마로 즐길 수 있어 인기다. 좀더 특별한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2층 버스를 선택해 탑승하면 된다.

울주군 두서면의 신유목장에서는 생생한 낙농체험이 가능하다. 우유공장과 방목장을 방문해 아이스크림이나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외고산 웅기마을에서는 웅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조정과 패러글라이딩 같은 익스트림을 즐기고 싶다면 충북 충주나 단양이 좋다. 충주에서 단양으로

이러지는 여행에서는 육해공에 걸친 레저를 전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자연휴양림에서는 DIY(Do It Yourself) 생활목공예 체험과 최장 505m에 달하는 지프라인(Zipline)을 만끽할 수 있다.

충북 충주의 중앙담면에 자리한 세계문화박물관 리퀴리움은 초등학생도 입장 가능한 이색 박물관으로 와인 만들기 체험이 이뤄진다. 탄금호에서 무료로 즐기는 조정 체험도 재미가 쏠쏠하다. 패러글라이딩의 메카 단양에서는 남한강 상공을 날아올라 천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경기 파주와 연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장소로 좋다. 우선 파주출판도시에서는 책과 놀고 즐긴다. 베짖이학교는 DMZ에서 로컬 식재료를 활용

해 요리하고, DMZ 나들이 등 이색 체험을 제공한다. 연천승마공원에서 말을 타고, 애심목장에서는 낙농 체험을 통해 방금 만든 치즈를 맛보며 가족애를 키울 수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물만난 국내? 봄바람 탄 골퍼 어디로

골프의 계절이다. 온화한 날씨지만 약간의 쌀쌀한 바람이 더해 18홀 라운드 후에도 쾌적함이 느껴진다. 겨우내 골퍼백을 방치했던 사람들도 라운드 계획에 행복할 미소를 지을 시기다. 골퍼장도 본격적인 모객전에 나섰다.

그러나 요즘 인천국제공항엔 캐디백을 카트에 싣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겨울철 해외 골프 시즌은 막을 내렸지만 '제2의 해외골프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비시즌을 맞은 외국 골퍼장들이 초저가 비용으로 한국인 골퍼 모시기에 나섰다.

골퍼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본격적 골프 시즌을 맞은 국내 골퍼장이나, 초저가 해외 골퍼장이나를 놓고 머뭇속이 복잡하다. 골퍼 마니아라면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 겨우내 해외 골프 한 번 못 가 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최근 모두투어가 내놓은 중국 웨이하이 골퍼여행 2박3일 패키지는 29만9200원(최저가 상품 기준)이다. 제주항공으로 출발해 3일 동안 36~45홀 라운드가 보장된다. 이 가격에는 왕복항공료와 각종 TAX, 해외여행자보험, 호텔 숙박(인 1실), 일정 내 조식, 일정 내 그린피 등이 포함된다. 현지에서 필요한 경비비는 기사·가이드 팁과 캐디·팁, 전동카트비, 라운드 중 이용하는 클럽하우스 식음료 정도다. 거기에 항공커버, 골프공 등의 특전까지 주어진다.

골프장 환경도 나쁘지 않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해외 골퍼장은 한국인 가이드가 상주, 언어적 불편도 없다.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는 한국과



비슷한 기후 환경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어 더 인기다. 게다가 중국 웨이하이까지는 비행시간이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만큼 항공료도 저렴하다. 중국 라오닝 성의 단둥은 이제 막 봄 기지개를 켜며 한국 골퍼 모시기에 나섰다. 이 지역 골퍼장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산악 코스에 포대 그린인 데다 여름에도 덥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는 무더위에 쫓겨온 비로 인해 정상적 라운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퍼들의 발길이 해외로 향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국내 골퍼장으로서 불편한 현상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골퍼장은 전에 없던 그린피 할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요일별·시간대별 그린피 할인이 그것이다. 골퍼로서 나쁠 게 없다. 전에 없던 국내 골퍼장 그린피 할인에 맞선 해외 골퍼 최저가 상품이 쏟아지면서 골라 치는 재미도 쏠쏠해졌다. 골퍼 시즌이지만 봄바람 탄 골퍼 마음 잡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요즘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어린이날... 아빠 어디가



한화 아쿠아리움.



롯데호텔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한화 아쿠아플라넷, '애들이 달려!' 이벤트 =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여수·일산)이 '애들이 달려! 드림카 경품 대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로드 전동차(헤네스 브론 T870) 다섯 대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로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해 스크래치 복권을 긁기만 하면 당첨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쿠아플라넷 통합 이용권(300명), 캐리어 인형(60명), 재방문 시 50% 할인권(6000명), 요술책받침(3만명) 등 총 3만6000여명의 어린이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는 5월 1일부터 매표소에서 소인 티켓 구매 시 응모 가능하며, 소진 시 이벤트는 자동 마감된다. 또한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위치한 전동차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더 플라자 호텔 숙박권, 미니카 종합세트 등 추가 상품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당첨자는 5월 20일 발표한다.

◇롯데호텔제주, 패밀리 콘서트 패키지 = 롯데호텔제주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8일부터 11일

까지 가족과 함께 제주의 산해진미와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콘서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2박 상품인 이번 패키지는 디럭스레이크 객실 2박에 패밀리 콘서트 뷔페 2인, 한·일·양식 중 선택해 즐기는 조식 2인 2회, 해운 시그니처 음료 2잔, 레저 전문 도우미 ACE와 함께 하는 쿠팡 클래스 1팀 무료로 구성된다. 가격은 80만원으로 세금과 봉사료는 별도다.

모든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ACE 체험 프로그램 50% 할인, 피트니스클럽 2인 무료, 주차 대행 서비스 1회 무료, JDC 공방 면세점 10% 할인의 특전이 추가로 마련된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 키즈 빌리지 =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인 키즈 빌리지를 제안한다. 어린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될 키즈 프로그램은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여행 기간 동안 색다른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즈 빌리지 첫째 날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 레고를 이용한 조립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

는 풀클레이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키즈 크래프트가 준비된다. 셋째 날에는 호텔 셰프들과 함께 피자과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쿠팡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어린이날에는 호텔 야외 정원에서 물 팹릭 쏘기 등 어린이를 위한 시간이 마련된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어린이 키즈 빌리지는 5세부터 13세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1회 참가비는 3만원이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 키즈 팰리스 패키지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다양한 체험 놀이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키즈 팰리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총 3가지 타입으로 첫 번째는 5월 4일에 투숙하는 키즈 팰리스 패키지로 온가족이 함께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5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셀레나홀에서 한국 집보리에서 진행되는 집보리 테마파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두 번째에는 어린이 메뉴를 특별 구성한 호텔 런치 뷔페를 즐길 수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3월 14일 서울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전북 현대의 경기에 관중이 몰려 있다.

뉴시스

‘구름 관중’ K리그, 계속 가자

“박주영 보자” 3만2516명 운집
서울 홈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
푸드트럭에 ‘미생’ 콘셉트 간식
구단별 팬마케팅 서비스도 한몫
7라운드까지 관중수 39만 넘어
“한 시즌 200만 돌파 가능” 전망

프로축구 K리그의 흥행 바람은 이어질 수 있을까. 시즌 초반부터 K리그 경기장에는 기대 이상의 관중이 들어왔다.

개막전에는 평균 1만3979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2라운드에는 1만5896명으로 프로축구 관중 수 실집계가 이뤄진 2012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7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총 관중 수는 39만1508명으로 지난 시즌 34만1217명보다 5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경기당 평균 2만614명으로 가장 많은 관중이 찾았고, 뒤를 이어 전북 현대가 1만7856명을 동원했다. 수원 1만6185명, 포항은 1만3877명이 동원됐다. 전체 평균은 9322명으로 올 시즌 한국프로

야구(KBO) 평균 관중 수 1만144명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지금과 같은 기세가 이어진다면 한 시즌 200만명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기대를 모은 이번 시즌 첫 슈퍼매치도 성공을 거뒀다. 18일 수원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슈퍼매치에는 2만6250명의 관중이 몰려 개방한 관중석을 대부분 채웠다. 홈팀 응원석을 비롯해 E석 1층 역시 가득 차 자리에 앉지 못한 관중도 있었다.

수원은 이날 슈퍼매치를 찾은 관중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수원으로 돌아온 박희주(34)의 친필 사인이 담긴 블루원즈 매거진 500부를 판매했고, 경기 시작 전 박희주가 직접 판매원으로 나섰다. 푸드트럭 8대를 동원해 풍성한 먹거리도 제공했다.

팬마케팅에 나선 팀은 수원뿐만이 아니다. 울산 현대는 15일 홈경기를 직장인데이로 테마를 잡아 운영했다. 직장드라마 ‘미생’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사연을 받아 김신욱(27)과 하성민(28)이 직접 선정된 직장 부서에 간식을 전달했다.

포항 스틸러스는 관중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맥주를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차별화를 노렸다. 또 선수들이 직접 출연하는 ‘형만 한 아우 없다’와 ‘포항 승리, 대개도 안다’ 등의 홍보영상으로 팬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시즌 FC 서울은 박주영(30)을 영입해 전력 상승과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 6년 6개월 만에 친정

팀으로 돌아온 박주영에게 팬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기대였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전북의 경기는 3만2516명이 입장해 2012년 이후 서울 홈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은 홈 개막전 7라운드까지 평균 관중 수 2만614명으로 흥행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박주영이 활약하기 시작하면 팬들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K리그의 흥행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경기 연속 무패를 달성하며 대기록을 이어 간 전북과 슈퍼매치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린 수원 등 강팀을 제외하면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팀의 관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남은 최고 관중 8369명에서 5라운드 3135명, 6라운드에 1902명까지 떨어졌다. 최근 4경기 동안 승리를 맞보지 못한 광주는 평균 관중 2111명에 그치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는 개막전 관중 9082명에서 7라운드 1598명까지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적극적인 관정으로 경기가 소극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끈다는 방침이다. K리그 관계자는 “각 구단이 5월에 마케팅에 힘을 쏟고 심판이 공격 축구를 유도해 흥미 있는 경기를 만들면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토종vs외국인, K리그 득점왕 경쟁



수원 삼성 염기훈



포항 스틸러스 손준호



전북 현대 레오나르도



전북 현대 에두

‘화력 전쟁’ 넘어 ‘팀 우승’까지 노린다

4명 7경기 4득점, 리그 공동 1위

‘원발의 마술사’ 염기훈(32·수원 삼성)의 원발이 올 시즌 득점 경쟁에 불을 지폈다.

2015 한국프로축구(K리그) 득점 선두 경쟁은 치열하다. 염기훈과 함께 레오나르도(29·전북 현대), 에두(34·전북 현대), 손준호(23·포항 스틸러스)가 각각 7경기 4득점으로 리그 득점 1위를 다투고 있다. 염기훈은 매 경기 공격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선수들의 득점력은 소속 구단 성적으로 이어졌다. 득점 선두 2명을 보유한 전북은 승점 19점(6승1무)으로 1위를 지키고 있고, 수원은 승점 14점(4승2무1패)으로 2위다. 포항(승점 12점·4승3패)은 4위에 올랐다.

염기훈은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8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4골 5도움으로 공격포인트 부문 단연 선두다. 염기훈은 “이번 시즌엔 생각보다 경기감각이 빠르게 올라와 기대는 했지만 8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수원은 염기훈의 활약에 힘입어 6경기 무패 행진 중이다. 개막전에서 포항에 0-1 패배를 당한 수원은 이후 6경기를 4승 2

무로 마무리했다. 염기훈은 18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도 1골 2도움으로 3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정대세와 함께 서울 수비진을 뒤흔든 염기훈은 날카로운 쇄도와 정교한 코너킥으로 몰고온 기량을 뽐냈다.

에두와 레오나르도는 나란히 전북 현대를 이끌고 있다. 에두는 성남과의 개막전에서 두 골을 폭발시키며 시즌 초반 기세를 높였다. 전북은 에두가 침묵한 3월 22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을 제외하고 4일 포항전까지 에두의 골이 터질 때마다 승리했다. 에두의 기세는 레오나르도가 이어 받아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고 있다. 광주(12일)와 부산(15일)전에서 역전골로 전북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18일 제주전에서도 한 골을 넣으며 전북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전북은 K리그 통산 첫 22연속 무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미들라이커’로 골을 폭발시키고 있는 손준호는 포항 스틸러스의 2연승을 이끌었다. 포항은 이번 시즌 라자르(29)와 티아고(22), 안드레 모리츠(29)를 영입해 공격력을 보강했다. 그러나 3인방이 아직 팀에 녹아들지 못해 화력에 공백이 생겼다. 손준호는 문창진과 함께 해결사 역할을 하며 공격력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차두리 빠진 FC 서울, 한숨 커지는 최용수 감독

26일 광주전 이겨야 중위권 진입

FC 서울과 광주 FC가 중위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다.

서울은 26일 전남 목포 축구센터에서 열리는 2015 한국프로축구(K리그) 클래식 8라운드에서 광주와 맞붙는다. 광주는 승점 8점(2승 2무 3패·8위)으로 서울(승점7점·2승 1무 4패·9위)보다 앞서 있다. 이번 경기에서 서울이 승리하면 순위는 역전된다. 그러나 광주전 승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최용수(42) 감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격진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주전 수비수 차두리(35)의 공백도 생겼다. 연이은 정규리그와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18일 슈퍼매치에서 수원 삼성에 1-5패배를 당한 충격도 있다.

그동안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겪은 최용수 감독은 이번 시즌 야심차게 박주영(30)을 영입해 공격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박주영은 침묵에 빠져 있다. 4경기 동안 필드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www.rynkorea.com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위키 & 페이스북

(주)RYN코리아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기능성 워킹화에서부터 스포츠 패션까지 세계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RYN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 코넥스 예탁금 ‘3억→1억’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면제

K-OTC 2부 시장 27일 개설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개혁의 첫 작품으로 ‘거래소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코넥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대책, 장외시장 K-OTCBB 설립안을 내놓았다. 코넥스의 개인예탁금 규제를 완화하고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상품을 도입하는 등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위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랩어 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투자의 경우 예탁금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며, 특히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 시장에 소액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거래 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이 도입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선물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상품이 많으면 그에 맞춘 다양한 수요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무엇보다 시장이 살려면 상품이 다양해야 수요자가 몰려 시장이 두터워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에는 초기단계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인 K-OTC 2부시장이 개설된다. K-OTCBB는 주식유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의 종목으로 개설하고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코넥스와 장외, 파생시장 활성화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5대 분야 15개 계획 과제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거래소 구조개혁과 모험자본의 투자활성화, 연금금의 효율적 운용,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국내 증권사 상장기업 분석 리포트 들여다보니

올 목표주가 상향보다 ‘하향’

보수적 보고서 1월에 몰려

국내 주요 증권사가 올해 내용은 유가증권 기업분석 리포트 가운데 목표주가를 낮춰잡은 ‘보수적’ 관점의 하향 보고서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정보업체 FNA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이날까지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분석 리포트는 총 8000여개다. 이 가운데 목표가를 낮춰잡은 하향 분석 리포트가 목표가를 높여잡은 상향 보고서보다 많았다. 신규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총 389건이었다.

이 기간 종목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는 총 120건, 반대로 목표가를 낮춰잡은 종목은 13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1월에 집중적으

로 발표했다. 목표가 하향과 관련한 리포트는 49개, 목표가를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는 26건에 불과했다.

2월까지는 목표가 상향 보고서와 하향 보고서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 목표가 상향보고서가 21건, 하향보고서가 13건이었다. 4월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이날까지 상향 34건, 하향 19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건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리포트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날 “투자 의견은 국내 경제현황은 물론 관련 섹터의 업황, 글로벌 추세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내놓고 있다”며 “주요 증권사가 1월 초 코스피시장 상승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2월부터 대부분의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펀드슈퍼마켓 출범 1년 투자자 ‘95%’가 웃었다

개설계좌 총 8만9926개

누적수익률 평균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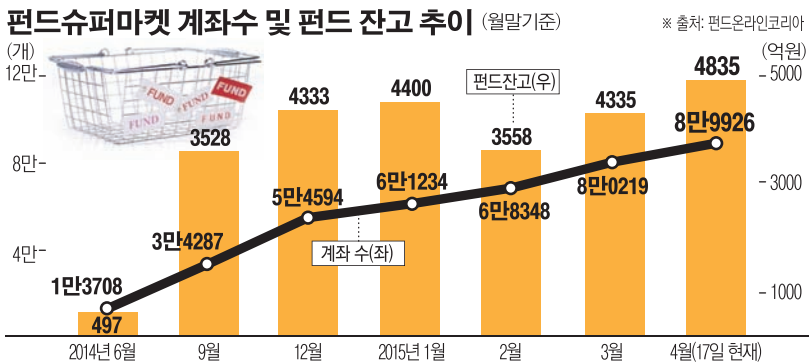
분산투자시 고수익 거둬

24일 출범 1년을 맞은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온라인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 품으로 특목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5.26%(누적)이며 투자자 가운데 95%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펀드슈퍼마켓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펀드슈퍼마켓 투자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출범한 펀드슈퍼마켓은 17일 현재 총 8만9926계좌가 개설됐고, 투자금액은 4835억원에 이른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32.71% △40대 30.35%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어 △50대 17% △20대 12.34% 등의 순이다. 반면 연령대별 수익률 순위는 50대가 평균 8.94%로 가장 높고 다음 10대



8.65%, 60대 이상 8.57%이다. 30대와 40대는 7.11%, 7.32%로 다소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68%로 절반 이상이며 여성은 32%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 성과는 남성이 7.99%로 여성 7.75%보다 약간 높았다.

펀드슈퍼마켓 투자자들은 1인당 평균 2.4개 펀드에 가입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다. 5개 이상 펀드 투자자들이 평균 7.9% 성과를 올린 반면 1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평균 3.63%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투자된 펀드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에셋플러

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펀드’이며, 다음으로 ‘신영고배당주식펀드’, ‘한국벨류10년투자주식펀드’의 순이었다. 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장 많이 투자됐으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펀드를 비교해 보고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5월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또 기존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강화했으며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신의 펀드와 회사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페이지를 신설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더 주고 싶은 부모 vs 덜 받겠다는 자녀

NH투자증권 ‘부모-자녀 세대간 인식’ 설문조사

부모보다 자녀세대 적극적이고 독립적 성향 보여

상속이나 부모부양, 자녀지원 등과 관련해 부모세대보다는 자녀세대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와 부모 세대간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2015 부모-자녀 세대간의 인식 차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자녀세대인 젊은층은 부모세대인 고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에 보다 더 독립적인 자세를 보였

다. ‘상속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되도록 늦게 받으려 하고, 부모의 지원으로부터도 빨리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부모세대는 상대적으로 상속을 빨리 해주려는 경향과 되도록 오랫동안 자녀를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10대의 경우 부모의 자녀 지원은 언제까지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졸업 때까지’가 50.6%로 1위를 차지한 반면 60세 이상은 ‘결혼할 때까지’라고 답변한

비율이 31.9%에 달했다.

부모부양과 관련해서도 자녀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었으며, 오히려 부모세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원하겠다는 부모 용돈의 규모도 젊은 세대일수록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의 적당한 규모에 대해 10대는 42만원을 제시한 반면 60세 이상은 27만원이라고 답변한 것.

100세시대 연구소 이윤학 소장은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반면, 부모세대는 최대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려 하고, 덜 의탁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못된 자식’, ‘염치없는 부모’가 아니라 ‘착한 자녀’, ‘따뜻한 부모’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신가치투자자로 돈 번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 www.segerotv.com > 스마트폰 설치가능!

"주식 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계로TV의 신가치투자자로 돈 번 사람들

25개월만에 8억 3천만원 벌다 - 필명: 금융강국
수익금으로 집을 사다 - 필명: 집사자

- ◎ 2015년 국가 소비자중심 대상 수상! - 동아일보 선정!
- ◎ 서적 구매 독자를 위한 ₩ 65,000 (세계로 TV) 1일 무료 이용권
- ◎ 무료 주식 강연회

강의: 김원기 대표
주제: 바이오 & 신기술주에 투자하라!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2~3시
장소: 5, 6호선 공덕역 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혜택: 무료회원 가입시 도장지갑 증정

※ 선착순 입장 / 전화예약안함

문의: 02-336-2226



김원기 지음 | 248쪽
글로벌북스 | 값 14,000원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카타르시스!

내가 사는 복잡한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주는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어제 본 드라마부터 시작되는 대화는 늘 같은 패턴이지만, 오늘따라 왜인지 시시한 기분이 든다. 골 색다른 주제의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만 금방 지식에 한계가 오는 듯하다. 문득 자신의 부족한 지식 수준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절감하지만, 금세 막막해져온다. 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 걸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현실 편(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과 현실 너머 편(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은 방대한 지식 분야를 마치 천일야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다.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고 단순하게 구조화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채사장 지음 | 376쪽
한빛비즈 | 값 16,000원

종합
베스트셀러

현실너머편
절찬리 출간

문의: 02-2128-8775

영인프린터 ‘바이오’ 뿔뿔... 올 최대실적 기대감



1분기 매출 잠정집계 51억원... 지난해보다 21% 증가
전체 영업이익도 19% 늘어... “올 매출 200억 넘을 것”

영인프린터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영인프린터 관계자는 “가결산에 의한 잠정집계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부문별로는 과학기기 사업부문과 바이오 사업부문 매출이 각 37억3000만원, 13억90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각 14.3%, 43.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 전체 매출액은 51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1% 증가할 전망이다.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약 1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기순이익 역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분석연구장비와 연구용 항체, 시약 등의 기초 바이오 제품을

공급하는 영인프린터 실적 또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회사가 처음으로 매출 200억원을 넘어서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추세라면 목표 매출액 270억원 달성은 물론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학기기 사업부문의 제품라인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 증가와 함께, 바이오 사업부문이 매출 60억원(2014년 43억7000만원)을 달성할 것”이라며 “바이오 기업으로서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인프린터는 21~2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9회 국제연구·실험기자재 및 첨단분석장비 전시회(KOREA LAB 2015)’에 참가해 한글지원이 가능한 모듈형 다항목 수질측정기 ‘Orion VERSA STAR’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최근 한글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보정 및 측정, 설정단계에서 한글 설명이 표시돼 사용자들이 손쉽게 보정하고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실험실용 pH미터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견고함과 편리성 등의 제품 내구성과 측정값의 높은 정확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모두 갖췄다. 송영록 기자 syr@



빅뱅·2NE1 한류스타 ‘모바일게임 속으로’

YG엔터-한빛소프트 손잡고
리듬댄스 게임 ‘오디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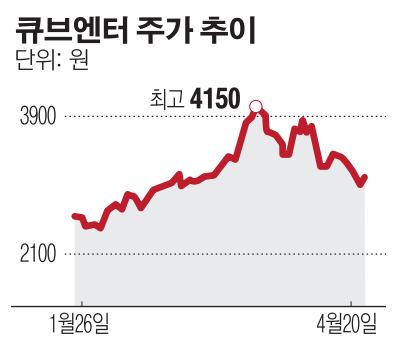
한빛소프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한류(韓流)를 대표할 모바일 리듬 댄스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해의 수출 공동 사업을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가 체결한 공동사업 계약 전제에 따라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 초상권과 음원, 앨범, 그룹명,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한 컨텐츠 일체를 제공한 다. 한빛소프트 측은 YG 소속 연예인들을 활용한 오디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다. 게임 내에는 스타 연예인들을 모델링한 캐릭터

터들이 등장한다. 일명 ‘모바일 오디션(가칭)’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빛소프트와 YG엔터테인먼트는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업무 제휴를 통해 한빛소프트는 인기 리듬댄스게임 오디션의 브랜드 파워 확대가 가능하다. YG에 소속된 모든 아티스트 컨텐츠가 게임 안에 적용될 경우, 이들의 열성 팬클럽층인 ‘팬텀(Fandom)’이 게임으로 폭넓게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충성 유저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게임 공개 시 높은 주목을 끌 부분이다. YG 측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 모바일 게

임을 시작으로 YG가 본격 게임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하겠다”며 “오디션 모바일의 공동사업권을 통해 각종 마케팅 활동 지원은 물론, 해외 퍼블리싱 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빛소프트 김유라 부사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발판을 위한 초석을 잘 다진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YG엔터테인먼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게임성을 갖춘 오디션 모바일 신작은 올 하반기 공개 서비스를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양사는 서로 상생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잘 결합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큐브엔터 “중국 찍고 세계로”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티스트 비스트가 중국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큐브엔터는 국내에서의 차별화된 K팝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비스트의 중국 공연은 비스트가 중국 현지에서 정식 데뷔하지 않아 음반발매나 프로모션 등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개최하게 되어 비스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큐브엔터 대표 걸그룹인 포미닛도 지난 달 중국 최대 음악시상식 ‘QQ뮤직어워드’에서 한국 대표 아티스트로 선정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 같은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오는 하반기에 중국에서 추가로 단독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큐브엔터 관계자는 “큐브만의 독자적인 음악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성공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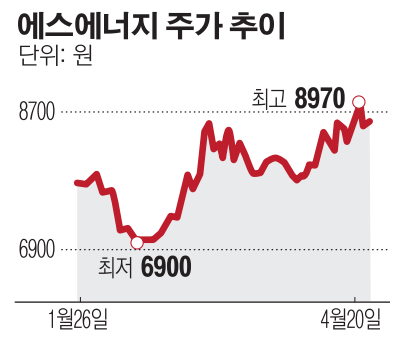
능성을 매우 높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큐브엔터의 소속 아티스트 비(정지훈)이 주연한 중국 드라마가 방영 예정이어서 노출 확대를 통한 큐브엔터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시너지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큐브엔터는 다각도로 중국 현지 대표 업체들과의 업무 협약 체결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 비스트의 공연은 내달부터 홍콩과 대만에서 약 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예정이다. 올해 약 10회 이상의 중국 현지 공연을 목

비스트 중국 첫 콘서트 준비 한창
가수 비 주연 드라마도 방영 앞뒤
“미주·유럽 영역 넓히며 한류 선도”

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큐브엔터 소속 아티스트 비투비는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발표한 첫 번째 오리지널 싱글 ‘미레(あした)’가 약 1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일본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일본 데뷔 반년도 되지 않은 신인으로서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 비투비는 4월 말에서 5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단독공연을 개최해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큐브엔터 박종민 대표는 “지난 2년 간 해외 공연을 전개하지 않아 현재 큐브엔터의 해외 공연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태”라며 “올 한 해 큐브엔터의 이름을 걸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전역 이 외에도 미주와 유럽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확대해 대표 한류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달 9일 코스타카 시장에 상장했다. 송영록 기자 syr@

에스에너지, 칠레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5000만 달러 MOU

에스에너지는 칠레 신재생에너지 종합 기업과 500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및 프로젝트 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스에너지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칠레의 다수 빌딩에 고단열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태양광모듈을 공급하고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칠레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선두 기업으로 바이오매스,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두루 갖추고 있다. 2001년 칠레 최초로 풍력발전을 도입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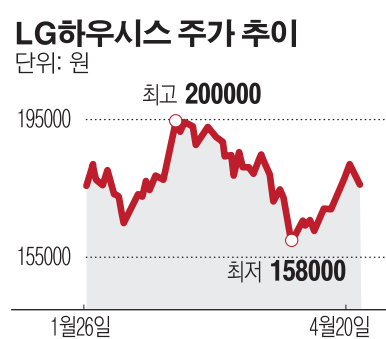


현재 풍력발전 500MW, 소수력 1GW 규모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태양광 사업 부문을 확대하며 전세계에서 일사량이 가

장 풍부한 아타카마(Atacama)지역에서 500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칠레 정부도 태양광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GDP 기준 중남미 1위 칠레는 2025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무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에스에너지 관계자는 “연간 52억 달러 규모인 칠레의 에너지 시장은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며 “이번 MOU를 기반으로 중남미를 에스에너지의 제2의 수출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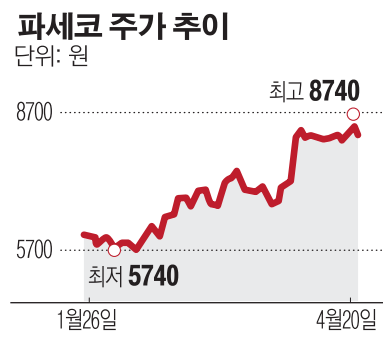
건설경기 봄바람 타고~ LG하우시스 ‘통큰 투자’

무보증사채 2000억원 발행
마곡 사이언스파크 신축 등
1400억원은 시설자금 사용



LG하우시스가 14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건설경기 회복으로 건설업종의 회사채 발행이 줄을 잇는 가운데 건축자재업체인 LG하우시스도 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금 마련에 나선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사채는 1000억원 규모의 5년물 ‘제8-1회 무보증사채’와 7년물 ‘제8-2회 무보증사채’로, 금리는 수요예측 이후 확정된다. 수요예측기간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LG하우시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 중 1400억원을 시설 투자에 투입한다. 투자 내용은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신축(608억원) △경량 화부품 등 자동차 확장투자(294억원) △청주공장 이전투자(231억원) △인조대리석 증설투자(108억원) △안전환경 투자(160억원)이다. LG하우시스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신축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

한 연구소 신축공사다. 총 투자예정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다. 총 투자 예정 규모는 1531억원으로 이번에 마련한 자금은 연내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에 사용한다. 또한 친환경차 및 연비규제로 급성장할 예정되는 경량화 자동차 사업 기회 대응을 위한 경량화부품 생산설비 투자도 진행한다. 투자기간은 연내다. 아울러 매출 증대에 따른 인조대리석 생산설비 확대를 위해 올해 108억원을 투입한다. LG하우시스는 청주공장 바닥재, 인조대리석 등 생산설비의 육산공장 이전 및 공동지원시설 건축공사에 오는 2016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올해 231억원이 집행된다. 더불어 회사는 환경 안전사고 예방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울산, 청주공장 유지보수·개선투자에 10월까지 160억원을 투입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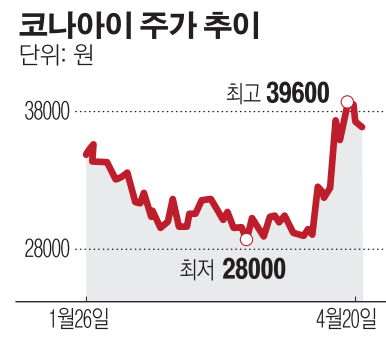


파세코 빌트인가전
1분기 수주 93% 증

파세코는 1분기 빌트인가전 수주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93%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가스레인지 쿠파에 대한 수주가 증가했다. 이는 올해 초 주거용 신규 주택 부문과 재건축 부문의 경기가 회복된 데 따른 수혜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민간건설수주액은 약 6조3000억원으로 조사가 실시된 이래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다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74% 증가했다. 이러한 호조세는 2월에도 이어져 2월 민간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44%가 증가했다. 파세코는 석유난로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2007년 빌트인가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주요 대기업과의 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ODM) 형태로 빌트인 시장에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와 별도로 자사 브랜드 구축을 위해 직판점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빌트인가전의 B2C 사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우 홍은희씨와 전속모델 계약 및 주방용 레인지후드의 홈쇼핑 판매 등을 통해 파세코의 브랜드파워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 성과가 실제 수주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코나아이, 中쓰촨성에 스마트카드 서비스

결제·ID·스마트미러링·e헬스 등
하나의 카드로 통합 관리 가능



이후에 서비스의 변경 및 정지, 삭제 기능도 NFC 기술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 카드에 내장된 SE(Secure Element)에 저장됨으로써, 편의성과 더불어 보안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3년동안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며 “또 다른 핀테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 완료하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한 코나아이와 애플, 구글,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회사에 버금가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IT업계의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동성하이캠 영업익 29% ‘쑥’
합병 앞둔 동성홀딩스 ‘방긋’

동성홀딩스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동성하이캠은 2015년 매출액 2714억원에 영업이익 195억원이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에 따른 일시적 실적하락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은 약 9%, 영업이익은 29% 성장하는 수치이다. ?오는 5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동성하이캠이 동성홀딩스로 흡수합병 되는 경우, 이는 곧 동성홀딩스의 직접 수익으로 인식돼 사실상 합병법인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동성홀딩스와 동성하이캠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대회의실에서 기업 설명회(IR)를 개최한다. 합병법인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 자리는 동성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현 기자 yhssoo@

A black Hyundai Tucson SUV is shown from a front-three-quarter perspective, driving through a cloud of dust or smoke. The car's headlights are illuminated, and its distinctive grille with the Hyundai logo is prominent. A license plate reading "TUCSON" is visible on the front bumper. The background is a bright, hazy sky.

GO. DYNAMIC.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illegible]